한인 단체의 연극 활동 연구

-일제강점기 동북아시아 민족 단체 및 연극 단체를 중심으로-

윤금선*

〈차례〉

1. 머리말
2. 중국 지역 한인 단체의 연극 활동
   2.1. 공연 주체와 공연 목적
   2.2. 공연 내용 및 특징
3. 러시아 지역 한인의 연극 활동
   3.1. 공연 주체와 공연 목적
   3.2. 연극 내용 및 특징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동북아시아 지역 민족 단체 및 연극 단체의 연극 활동을 고찰하였다, 특별히 본고에서는 당시 동북아 지역에서 발간된『獨立新聞』,『韓民』,『救亡日報』,『권업신문』,『선봉』 등의 한인 민족지와 잡지『韓國青年』, 독립운동가 자료 등을 중심 텍스트로 삼았다. 이 시기에 쓰여진 동북아 지역 한인들의 희곡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된 단편적인 공연 정보를 통해서라도 당대 연극 활동들을 재구내고 그 사료적 가치를 자리매김해 보고자 했다. 본론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두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에서는 상해와 남경 등지, 후자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인 단체들의 연극 활동을 고찰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첫째로 공연 주체측과 공연 목적 등을 살펴보았고, 둘째로 공연 정보를 통해 극 내용과 특징 등을 살폈다. 먼저 중국 지역에서는 교육기관 및 부인회와 청년회 등 민족 단체와 '한국전지공작대', '조선의용군' 등의 독립군이 주체가 된 공연에 주목하였다. 이 단체들의 공연 목적은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각 기관의 '보조금' 및 '구제금' 마련을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당시 동북아시아 한인사회에서의 연극 공연은 일종의 민족운동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연극 내용 및 특징을 보면, 대부분 항일소재의 극이었으며, 정극(사실주의극), 가극, 고전극 등 장르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었다. 다음 러시아 지역에서는 민족 단체인 '권업회'와 사회주의 선전단체로서의 '연극단'이 주체가 된 공연을 살펴보았다. 권업회의 공연은 한인 구제를 위한 목적이 지배적이었고, 간헐적으로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자 공연을 개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연극단은 '문화사상과 혁명정신'을 선전하고자 선동적인 연극을 공연했으며, 사회주의적 사상성을 가미한 고전 각색극도 개최했다. 본고는 유실되어 찾기 어려운 희곡들에 대한 공연 정보들을 재구해내고 이 분야의 연구 지평을 넓힌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 동북아시아, 한인단체, 연극 활동, 공연주체, 공연목적, 공연내용,『獨立新聞』,『韓民』,『韓國青年』,『救亡日報』,『勸業新聞』,『선봉』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전임강사

1. 머리말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해외 한인의 연극 활동[1]을 살피는 일련의 후속 연구로 새로이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동북아시아 지역 한인단체의 연극 활동만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특별히 본고에서는 당시 동북아 지역에서 발간된『獨立新聞』,[2]『韓民』,[3]『救亡日報』,[4]『勸業新聞』,[5]『선봉』[6]

1) 윤금선,「일제강점기 해외 한인의 연극 활동 연구」,『한국극예술연구』 제24집, 한국극예술학회, 2006.

2) 창간 당시 사장 겸 편집국장은 이광수로서 ① 독립사상 고취와 민심통일, ② 독립사업과 사상 전파, ③ 유력한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독려하여 국민의 사상과 행동의 방향 제시, ④ 새로운 학술과 새로운 사상 소개, ⑤ 국사(國史)와 국민성을 고취 개조 등을 목적으로 발간된 신문이다(차배근 외,『우리 신문 100년』, 현암사, 2002, 118면).

3) 1936년 김구(金九)의 주도로 창단한 한국국민당에서 발간한 신문으로 항일투쟁과 독립의식을 고취하고자 발행되었다(차배근 외, 위의 책, 145면).

4)『救亡日報』는 1937년 곽말약(郭末若)이 상해에서 창간한 항일신문이다. 1939년 1월 10일 계림에서 복간된『救亡日報』는 4면으로 발간되었다. 광범위한 독자층과 항일논조로 대중성을 띤 전국적 신문으로 특히 조선의용대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지면을 상당량 할애하여 조선의용대 및 한국 독립운동에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염인호,『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제53권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1995, 53면).

5) 러시아 항일구국운동 단체인 '권업회(勸業會)'의 기관지로서 1913년에는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장기영・김성무 등이 민족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발간하였다(박환,『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74면).

6) 한글신문『선봉』은 소련에서 발행된 신문이다. 이후『선봉』은『레닌기치』로 제호를 바꾸고 서재욱을 주필로 한 '러시아공산당(볼쉐비키)' 중앙위원회의 결정하에 1938년

www.kci.go.kr

등 한인 신문과 잡지 『韓國靑年』,[7]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가 자료[8] 등을 중심 텍스트로 삼았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동북아 지역 한인들의 희곡 자체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특히 이민 초기의 경우 자료가 희귀하여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된 단편적인 공연 정보를 통해서라도 당대 연극 활동들을 재구해내고 그 사료적 가치를 자리매김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신문들은 대부분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발간된 민족지들이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나타난 민족 단체의 연극 관련 보도에 주목하여 그 활동상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발굴된 자료에 기대어 공연 활동들을 살펴본다는 한계로 인하여 동북아 지역 한인들의 전반적인 연극 활동을 그려내는 데 미진한 점이 있다. 실제로 한인들의 이주 지역은 분산되어 있고 보다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연구의 어려움이면서 이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 지면상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일례로 『선봉』에는 극평(劇評)이 다수 게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연 관련 사항들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뿐만 아니라 『레닌기치』나 『고려일보』의 경우도 연극 관련 보도가 게재되어 있어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이것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 있는데, 이러한 후속 연구로 본고의 미진한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 여긴다.

한편 저널을 통한 정보라는 특징으로 인해 관객들의 반응이나 평자들

5월 15일 복간되었다. 이후 50여년을 『레닌기치』란 이름으로 발간되다가 1991년초 『고려일보』로 개칭되어 자유신문이 된 후 오늘날까지 간행되고 있다(반병률, 「러시아지역 한인신문 약사」, 『재외동포신문』, 2003.7.14).

7) 이 잡지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기관지로 1940년 7월 25일에 창간된 잡지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韓國靑年』, 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8) 특히 이 자료는 독립기념관 자료(https://search.i815.or.kr)들을 참고한 것으로서, 이하 자료들의 출처는 사이트명 대신 실제 출처가 된 원전들을 각주로 밝히기로 하겠다.

의 연극평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작품을 창작하는 생산자만이 아닌 관객이나 평자들이라는 수용자적 측면에서 작품을 살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도 주시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점에서 여타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본론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두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에서는 상해와 남경 등지, 후자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인 단체들의 연극 활동을 고찰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첫째로 공연 주체측과 공연 목적 등을 살펴보았고, 둘째로 공연 정보를 통해 극 내용과 특징 등을 살폈다. 실제 동북아 지역 한인의 희곡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로서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은 개척 분야에 속하기도 한다. 본고는 유실되어 찾기 어려운 희곡들에 대한 공연 정보들을 재구해낸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어, 희곡 작품을 분석한 기존의 몇몇 연구[9]와 변별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2. 중국 지역 한인 단체의 연극 활동

2.1. 공연 주체와 공연 목적

2.1.1. 교육기관 및 부인회와 청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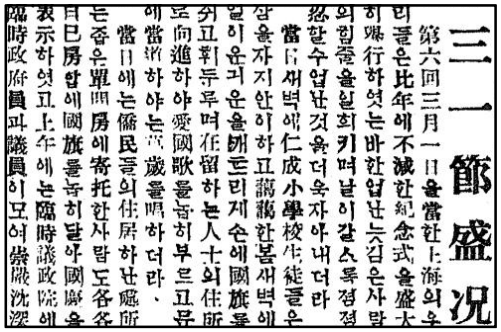
중국 지역에서 발간된 『獨立新聞』, 『韓民』 등의 자료는 민족 단체의 기관지로서, 상해 및 남경 지역 한인사회의 제반 보도 자료를 살필 수 있는 신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임시정부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그 산하 단체의 공연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기관이 중심이 된 공연 보

9) 박명진,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희곡텍스트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48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1937~1991)』,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등.

www.kci.go.kr

도가 자주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당시 중국 지역으로 건너간 민족 지도자들은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들을 건립했는데, 김백연은 상해에서 '인성학교(仁成學校)'를, 안창호는 남경에서 '동명학원(東明學院)'을, 김약산은 북경과 남경에서 차례로 혁명청년간부학교 및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열었다.[10] 그런데 이들 학교는 '임시정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근대 학문과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의 장이면서 동시에 학부형과 일반 교민들이 민족적 단결을 위해 함께 모이는 운동의 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연극 공연이었고, 주로 학생이 주체가 되어 연극을 공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도에 나타난 관련 자료들을 보면, 먼저 상해 지역의 '인성학교' 공연을 들 수 있다.


三一節盛況
第六回三月一日을當한上海의우리들은比年에不滅한紀念式을盛大히擧行하엿는바(…)當日에는僑民들의住居하난處所는좁은單間房에寄托한사람도各各自己房압에國旗를놉히달아國慶을表示하엿고上午에는臨時議政院에臨時政府員과議員이모여崇嚴沈深한祝賀會를열어感想과勉勵를서로말하엿고午後에는僑民團

[그림 1] 「三一節盛況」(『独立新聞』, 1924.3.29)

(1) 第六回 三月一日을 當한 上海의 우리들은 比年에 不滅한 紀念式을 盛大히 擧行하엿는바 (…) 當日에는 僑民들의 住居하난 處所는 좁은 單間房에 寄托한 사람도 各各 自己房 압에 國旗를 놉히 달아 國慶을 表示하엿고 上午에는 臨時議政院에 臨時政府員과 議員이 모여 崇嚴沈深한 祝賀會를 열어 感想과 勉勵를 서로 말하엿고 午後에는 僑民團 主催로 例年과 갓치 僑民全體가 祝賀會를 盛大히 開催하야 愛國歌, 宣言朗讀, 紀念辭 等의 順序가 잇섯고 (…) 한울을 움즉이는 萬歲로 閉會하엿고 三三五五의 自動車示威巡市와 醉歌舞蹈도 有하엿더라 當夜에는 仁成學校 主催로 어린이의 各種技藝와 自己네의 (凱旋)이라는 素人劇이 자미잇게 內外國觀客의 깁흔 늣김을 주엇더라

「三一節盛況」(『獨立新聞』, 1924.3.29)

(1)은 삼일절 기념식 관련 보도로서,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걸고 각종 축하 행사를 거행하는 축제의 날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기념식의 여흥으로 학생들의 각종 기예와 연극이 공연됐는데 인성학교가 주최가 되었다. 상해 지역 한인들은 매년 3·1절 기념일에 인성학교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가졌고 대개 인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하였다.[11] 이날은 당시 식민지하인 국내에서는 불가능했던 기념일로 오히려 이국 동포들에 의해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인성학교 공연 소식은 자주 거론되는데, 「仁成學校演藝會」(『獨立新聞』, 1923.2.7)에서는 학교 운영비 마련을 위해 '연예회'를 개최하고 음악, 가곡과 함께 연극을 공연한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학교는 기념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한인 사회 단체의 재정적인 경비를 마련하고자 연극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시한 기사문 외에 인성학교 추최 공연 보도는 「仁成學校狀況」(『獨立新聞』, 1920.3.25), 仁誠學校生徒」(『獨立新聞』, 1920.1.10), 「幼女夏期演劇會」(『獨立新聞』, 1922.8.12) 등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 졸업식, 학예회 등에서 연극을 공연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서 당시 인성학교는 상해 지역 한인 사회에서 공연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단체의 공연은 이외에도 남경의 동명학원 공연 자료로 南京에 三一節」(『韓民』, 1925.3.23)을 들 수 있는데, 이 기사에서도 삼일절은 축제의 날로 드러나며 <百年

10) 이러한 학교들은 조선 청년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 외에도 조선혁명운동가들은 중국의 黃埔軍校, 중앙군교, 및 기타 보통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임시정부, 마의(馬義) 편지」, 『조선혁명사화』, 자유동방사, 연도 미상).

11) 「三一節慶祝彙聞」, 『獨立新聞』, 1924.3.1.

www.kci.go.kr

의 功>이라는 기념극을 공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해와 남경 지역 등 한인들의 밀집지역에서 학교를 통한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교육 단체 외에도 여성 단체와 청년 단체에 의해서도 연극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의 예로는 三一節慶祝彙聞 (『獨立新聞』, 1924.3.1)과 청년회관에서 유흥회 (『韓民』, 1938.3.1)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에서는 상해의 여성 민족 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12]가 삼일절 기념으로 '항일극'을 공연하였다는 보도이며, 후자에서는 임시정부 한국국민당에 소속된 청년단이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삼일혼>이라는 연극을 개최했다는 기사이다.

한편으로는 독립운동가 자료에서 흥사단(興士團)이 주체가 된 공연 자료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제10회(원동)대회 位置, 日字, 任員, 順序」(『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문건류』, 1924.2)에서는 안창호가 주도가 된 원동대회에서 "演劇(正劇), 演劇(喜劇)"을 공연할 것이 예고되었고, 제10회 遠東大會 經過 狀況」(『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문건류』, 1924.2.7~8)에서는 <國交斷絶>이라는 연극 공연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제11회 遠東大會 經過」(『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문건류』, 1925.1.28~29)에서도 대회에서 <犧牲者>라는 제목의 연극이 공연되었음을 게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 한인사회의 각종 모임에서 연극 공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해나 남경 등의 한인사회에서 삼일절은 단순한

12) 상해 대한애국부인회는 1919년 10월 13일 프랑스 조계 보창로(寶昌路), 어양리(魚陽里) 2호에서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독립운동을 널리 선전하고 이에 대한 출판물을 펴내며, 여성을 사회로 적극적으로 진출시키는려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임시정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책을 발간하거나 태극기를 제작하는 일, 또는 3·1절과 같은 기념식 행사 준비 등의 활등 등을 도맡았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대표를 보내기도 했는데,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권애라와 김원경이 파견되기도 했고, 1923년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도 김순애가 참석하였다(김희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23권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기념관, 1995, 145면).

기념행사가 아닌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새로이 하는 특별한 의식의 날이었으며, 이날 빠지지 않는 행사 중의 하나가 연극 공연이었다. 연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에서 다룰 것이지만, 대개의 공연은 기념일 성격상 애국적 내용이나 항일투쟁의 내용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연극은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공고히 하며 교민들에게 민족적 울분을 해소해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13] 또한 이러한 교민들의 관극체험은 그 외 모임에서 이루어진 공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였다. 연극 주최측이 독립단체인 것을 고려할 때, 연극 공연은 결국 재외동포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의도한 바가 크며, 결과적으로 식민지 하 조국을 떠나온 한인들의 결의와 단합을 꾀하는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인사회에서의 공연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과 함께 각 기관의 '보조금' 및 '구제금' 마련을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구제를 위한 연극 공연은 '대한애국부인회'가 주체가 된 경우가 많았다.

(2) 在上海韓國敎會에서는 去二十五日夜 北京路禮拜堂에서 聖誕祝賀를 擧行하다 一時間半의 禮拜가 잇슨 後에 愉快한 餘興으로 만흔 喝采를 밧앗는데 其中에도 小學生의 遊戱와 婦人諸氏의 歌劇이 感嘆을 밧다 同日에 去番火災에 걸니인 法國孤兒院을 爲하야 捐補하엿는데 總額이 三十餘元에 達하엿다고

耶穌降誕節」(『獨立新聞』, 1919.12.27)

耶穌降誕節

在上海韓國敎會에서는去二十五日夜北京路禮拜堂에서聖誕祝賀를擧行하다一時間半의禮拜가잇슨後에愉快한餘興으로만흔喝采를밧앗는데其中에도小學生의遊戱와婦人諸氏의歌劇이感嘆을밧다同日에去番火災에걸니인法國孤兒院을爲하야捐補하엿는데總額이三十餘元에達하엿다고

[그림 2] 耶穌降誕節」(『独立新聞』, 1919.12.27)

13) 최경민, 「대한교민단(大韓僑民團)의 인성학교(仁成學校) 운영」, 『월간 독립기념관 3』, 1998.3(https://search.i815.or.kr).

www.kci.go.kr

(2)는 대한애국부인회가 주최한 성탄절 연극 소식으로 그 공연 수익금은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여성단체의 구제연극을 몇 개 더 들자면 「我愛國婦人會의 歌舞劇大演奏會」(『獨立新聞』, 1922.3.1), 三一節慶祝彙聞」(『獨立新聞』, 1923.3.1) 등으로서, 전자에서는 동 부인회의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하여, 후자에서는 불우한 여성을 구제하려는 뜻에서 연극을 공연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한애국부인회의 연극 활동은 미주 하와이 지역의 '부인구제회'와 비교된다. 부인구제회도 '국민회' 산하 단체로 미주 한인사회를 위한 구제연극을 자주 공연하였고, 심지어 동북아 지역의 독립활동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서도 연극을 상연하기도 했다. 이 두 단체의 활동상에서 당시 재외 한인사회 여성단체들의 공연은 일종의 민족운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다.[14]

구제를 위한 공연은 앞서 제시한 자료들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仁成學校演藝會」(『獨立新聞』, 1923.2.7)에서는 인성학교는 경비를 보조하려고, 청년회관에서 유흥회」(『韓民』, 1938.3.1)에서는 고아원 보조금을 위하여 연극을 공연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보면 공연에서 수입된 연극 관람료는 모두 한인사회 각 기관의 재정 보조에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연극 공연은 단순한 계몽이나 유흥이 아닌 민족사업의 하나였음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상해와 남경 등지에서 민족 단체가 주체가 된 연극 활동을 살펴보았다.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연극 공연이었고, 이러한 공연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주 한인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한인사회 각 단체의 재정적인 보조금을 마련하는 데도 일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15]

14) 윤금선, 일제강점기 해외 한인의 연극 활동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4집, 한국극예술학회, 2006, 58~61면 참조.

15) 이에 대해서는 '윤금선, 「일제강점기 해외 한인의 연극 활동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4집, 한국극예술학회, 2006'에서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새로운 분석의 틀과 다루지 않은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음을 밝힌다.

2.1.2. 광복군의 연극 활동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및 '조선의용대'

한편 중국 지역에서는 광복군에 의한 공연도 활발했다.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青年戰地工作隊)'[16]와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17]의 공연을 들 수 있다.

먼저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공연 관련 자료는 『韓國青年』이라는 잡지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韓國青年』은 1940년 7월 25일에 창간된 잡지로 국제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전지공작대의 공연 관련 내용이 상세히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8]

> (3) 우리는 시시각각 현재 실현 가능한 활동들을 찾고 있었고 고민 끝에 겨우 생각해 낸 것은 공연을 하여 군사들의 하복을 모으자는 것이었다. 목적을 정했으나 현재 자신들의 물자 부족과 빈곤함도 해결 못하는 와중에 미친 듯이 공연 광고를 해야 했으며, 입장표 설명서를 인쇄해야 했다. (…)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희생하기로 결심하였다. 중경에서 서북

16)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김구를 중심으로 중국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12명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군사기관에 복무하였거나 상해(上海), 만주(滿州)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있던 청년지사 30여 명이 모여 조직한 독립군 단체이다. 이들 대원들은 중국에서의 항일전이 곧 우리의 독립전쟁이라 인식하고, 중국에 흩어져 있던 한국 청년들을 총집결시켜서 중국의 항일전을 도왔다. 1940년 1월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됨에 따라 서안(西安)에 본부를 두고 총사령부를 호위하면서 장병들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남・화북성(河南・華北省) 등지로 나가 초모, 선전 및 첩보활동을 전개하였다(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제1권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독립기념관, 1995, 272면).

17) 조선의용대는 좌익계열 단체들의 연합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한 무장부대이다. 주도 세력은 조선민족혁명당이었다. 김원봉은 1938년 6월 중국중앙군관학교 성자분교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한인 청년들이 한구(漢口)로 집결하자, 이들과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선의용군'을 편성하였고 이후 '조선의용대'로 명칭을 바꾸었다. 1938년 10월 10일 한구에 있는 중화청년기독교회에서 조선의용대 창설식을 거행하였는데, 중국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무장조직이었다(김주용・박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제59권 국외항일유적지』, 독립기념관, 1995, 261~262면).

18) 실제 『韓國青年』은 순한문으로 쓰여진 잡지이다. 본고에서는 독립기념관에서 번역한 내용(https://search.i815.or.kr)을 인용 자료로 제시했음을 밝힌다.

www.kci.go.kr

까지 왔다. 현재 일부 동지들은 이미 태행산에 도착하여 유격전쟁에 참여한 상황이며, 남아 있는 우리들은 이곳 전지에서 위문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용맹스럽게 투쟁하고 있는 전방의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진정어린 경의를 표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韓國青年』(韓國青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그림 3] 『韓国青年』(韓国青年創戰地活動隊, 中国文化服務社, 1940.7)

위에 제시된 (3)의 내용은 1940년 5월 서안(西安)에서 군민위안 및 일선장병위문품 모집 공연을 한 내용이다. 박동운이 대회를 총괄하였고 <국경의 밤>, <한국의 용사>, <아리랑> 등을 공연하여 크게 호평을 받았다. 위의 연극 외에 이 독립단체의 실제적인 공연 자료는 더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제시된 작품 외에도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군인들을 위문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연극 활동을 펼쳤으며, 이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군인들을 위한 경비를 마련했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19] 여기에서 비록 구체적인 연극명이나 공연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극을 자주 공연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의한 공연이 활성화된 것은, 연극을 통한 선전활동을 주요한 당면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선전 사업과 문화 사업 활동의 중요한 방법은 관객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 즉 공연 등이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특히 그들이 겨냥한 관객은 중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극 공연 등을 통하여 일제가 한중 공동의 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중국인들의 항전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한

19) 國家報勳處,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5卷, 1988, 926~927면.

중합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20]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잡지의 마지막 후기 부분에서 "한국청년전지활동대 최근 출판!!"이라는 광고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적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4) 한유한(韓悠韓) 작곡 시나리오 아리랑/ 가곡본 한유한(韓悠韓) 각본/ 한국 가곡집/ 박동운(朴東云), 한유한(韓悠韓) 각본/ 한국용사/ 단막극/ 대적선전 수첩/ 대적전표어집

『韓國青年』(韓國青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4)를 보면 시나리오, 각본, 단막극집, 희곡작품집(『한국용사』) 등이 제시되고 있다. 『韓國青年』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극문학이 출판물로 발간될 정도로 연극 공연이 정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38년 한커우(漢口)에서 창설된 독립군 단체인 '조선의용대'의 공연보도는 주로 『救亡日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소식에 의하면 현재 계림에 머물고 있는 조선의용대원들은 전선으로 떠나기 전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원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연극의 제목은 '조선의 딸' 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극은 민족해방을 위한 조선 여성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공연을 앞두고 목하 모든 대원들이 막바지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의용대 桂林에서 '조선의 딸' 공연 예정」(『救亡日報』, 1939.1.21)

(6) 낮에는 조선의용대가 주최한 3 • 1운동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新華戲院에서 조선의용대가 준비한 연극 '조선의 딸'을 관람하

20)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37면.

www.kci.go.kr

였다. 연극을 관람하면서 느꼈던 가슴이 뛰는 듯한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다. 조선의용대가 연극 '조선의 딸'을 공연한 것은 조선 3 • 1운동 20주년을 기념하고 동시에 '상이군인의 벗되기' 운동에 호응하는 의미에서였다. 인력과 물자가 모두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의용대가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까지는 국내 예술계 인사들의 열렬한 지원이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조선 민족의 역사를 담은 '조선의 딸'을 보고」(『救亡日報』, 1939.3.3)

(5)와 (6)은 계림에 주둔한 '조선의용대'의 공연 보도이다. 당시 계림 지역의 조선의용대는 대내적으로는 중국 각 지역에 파견된 군대의 지휘와 감독을 담당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전체 조선의용대를 대표하여 외교와 일체 필요한 교섭을 진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21] 인용문에서 언급한 <조선의 딸>은 3 • 1운동 20주년 기념극이면서 군인들의 물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된 연극이다. 국내 예술계 인사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에서 당시 이 독립군의 활동은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인용문은 조선의용대가 '7 • 7항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反攻>이라는 연극을 공연할 예정이라는 보도이다.

(7) 桂林市 각 선전단체는 7 • 7항전 건국 2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7월 5일과 6일 이틀은 조선의용대가 준비한 2막극 '反攻'이 공연될 예정이다. 입장권은 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계림중학 정문에서 배포되고 공연은 저녁 7시 반부터 계림중학 대강당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7 • 7항전 기념일을 맞이한 조선의용대의 공연 계획」(『救亡日報』, 1939.7.4)

이 외에도 「조선의용대 제4기(제3주년 기념 특간)」(『독립기념관 임시정

21) 염인호, 앞의 책, 59~62면.

부 보고서』, 1929.11.26)에서도 "조선의용대가 기념극을 공연했다"는 보도를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공연 정보들은 더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연극 장르의 계몽적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당대 상황에서 다양한 연극이 공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계림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일전쟁기 계림은 문화도시였다. 특히 무한 및 광주(廣州) 철퇴 이후 작가 • 시인 • 기자 • 출판인 • 연극인 • 음악가 • 미술가 • 자연과학자 등 숱한 중국의 문화인들이 계림으로 모여들었다.[22] 극단도 상당수였는데 중일전쟁 시기 계림을 거쳐 간 극단은 100여 개나 되었으며 다수의 저명 작가들이 대본을 썼고 숱한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다. 거의 매일 연극이 공연되었고 여러 극장에서 동시에 상연되는 일이 많았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극이 무대에 올려졌다. 그리고 극장에는 열정적인 관중들로 들어찼다.[23] 당시 계림에서 다수의 공연이 개최된 것은 당대 지식층 및 선동가들이 관중과 직접 접촉하는 연극이 시나 소설보다 선전 효과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24]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위의 100여 개 극단 가운데에 조선의용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25]

이상에서 살펴본 바 많은 자료들을 볼 순 없었으나, 중국 지역의 공연 활동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및 '조선의용대' 등의 독립군들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연 목적은 항일의식 고취나 의연금 마련, 중국과의 연합 등을 도모하려는 데 있었으며, 특히 청년전지공작대의 경우는 극본을 출판할 정도로 연극 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2) 黃南翔 외, 『중국현대작가론』, 온누리, 1985, 41면.
23) 염인호, 앞의 책, 1995, 69면.
24)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2001, 594면.
25) 염인호, 위의 책, 69면.

www.kci.go.kr

2.2. 공연 내용 및 특징

2.2.1. '임시정부' 민간단체의 기념극 및 자선극

앞서 중국 지역의 공연 주체 및 공연 목적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공연 정보를 통하여 그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살펴 본 연극 관련 보도 중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난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중국 지역 민족 단체의 주요 공연 목록

번호	게재지	연월일	기사명	연극제목	지역	비고
1	독립운동가자료(기타 보고서)	1920.2.17	한국독립선언기념회에 관한 건	무제(연극)	남경	삼일절 기념극, 한민학교, 삼일여학교, 대한애국부인회 주최
2	獨立新聞	1920.3.25	仁成學校狀況	少年劇	상해	졸업 기념극, 인성학교 주최
3	獨立新聞	1919.12.27	耶穌降誕節	遊戱, 歌劇	상해	구제금, 소학생, 대한애국부인회 주최
4	獨立新聞	1920.1.10	仁誠學校生徒	무제(기이한 연극)	남경	내외국인 관람, 인성학교 주최
5	獨立新聞	1922.3.1	我愛國婦人會의 歌舞劇大演奏會	<隔夜>, 歌劇, 喜劇	상해	상일기념극, 대한애국부인회부인회 보조금, 애국부인회 주최
6	獨立新聞	1922.8.12	幼女夏期演劇會	무제(演劇會)	상해	인성 유년학교 공연, 학예회 발표
7	獨立新聞	1923.2.7	仁成學校演藝會	무제(演劇會)	상해	학비 보조금, 인성학교 주최
8	獨立新聞	1923.3.1	三一節慶祝彙聞	무제(연극)	남경	삼일절 기념극, 대한애국부인회 주최
9	獨立新聞	1923.3.7	中韓互助社 主催 遊藝大會의 經過	무제(연극)	상해	한중친목, 어학강습소 보조금
10	독립운동가자료(문건류)	1924, 2	제10회(원동)대회 位置, 日字, 任員, 順序	演劇(正劇), 演劇(喜劇)	상해	원동대회에서의 공연 순서
11	독립운동가자료(문건류)	1924.2.8	第十回 遠東大會喜樂會席上에서 出演한 演劇의 大意	<國交斷絶>	상해	홍사단의 안창호 주도, 원동대회 공연

12	獨立新聞	1924.3.1	三一節慶祝彙聞	歷史正劇	상해	삼일절 기념극, 인성학교 주최
13	獨立新聞	1924.3.29	三一節盛況	<凱旋>	상해	삼일절 기념극, 素人劇, 인성학교 주최
14	獨立新聞	1925.1.28~1.29	遠東大會 經過	<犧牲者>	상해	원동대회 공연
15	韓民	1925.3.23	南京에 三一節	<百年의 功>	남경	삼일절 기념극, 동명학교 주최
16	韓民	1938.3.1	청년회관에서 유흥회	<삼일혼>	남경	第十九回 三一節 紀念劇

실제 신문 자료를 보면, 공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제목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표 1]의 정리 내용은 비교적 논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료들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지역의 연극 공연은 주로 민족적인 기념일이나 주요 기념일 등에서 이루어졌다.

앞선 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바 있어, 여기에서는 극의 내용을 드러내는 사항만을 살피기로 하겠다. 먼저 상해 지역 인성학교 학생들의 공연 정보인 「三一節慶祝彙聞」(『獨立新聞』, 1923.3.1)을 보면 역사극을 공연했음을 알 수 있다.

> (8) 우리 學生의 史劇慶祝 上海에 仁成小學校를 主로 하야 該校의 已畢在學의 諸生들이 同日夜에 ○○○○得하야 歷史正劇을 試演하야 祝賀를 表하며 따라서 深微한 感想을 주랴 한다.
>
> 三一節慶祝彙聞」(『獨立新聞』, 1924.3.1)

인성학교가 주축이 되어 '역사정극(歷史正劇)'을 공연했다는 내용으로 '정극'이라고 표현한 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극'이라는 용어를 쓴 여타 자료를 보면 「제10회(원동)대회 位置, 日字, 任員, 順序」(『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문건류』, 1924.2. 일자 미상) 공연 순서에서도 '演劇(正劇)', '演劇(喜劇)'으로 연극을 분류하고 있으며, 「我愛國婦人會의 歌舞劇大演

www.kci.go.kr

奏會」(『獨立新聞』, 1922.3.1)에서도 '正劇', '歌劇, 喜劇' 등으로 공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원동대회의 '정극'이라 칭한 <國交斷絶>의 내용은 사실주의를 토대로 한 일반 '화술극'이다.[26] 이에 가극이나 희극과 다른 일반 '화술극'을 '정극'이라고 변별되게 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경 지역의 '동명학원'이 주체가 된 삼일절 기념극 내용은 「南京에 三一節」(『韓民』, 1925.3.23)에 게재되고 있다.

(9) 東明學院에서 林昌模 吳裕政 等 諸氏의 出演에 係한 우리의 獨立運動을 背景으로 한 百年의 功」이란 演劇을 가장 意義 깁고 滋味잇게 興行하고 茶菓를 난흔 後 同十時頃에 散會하엿더라

南京에 三一節」(『韓民』, 1925.3.23)

동명학원에서 공연한 삼일절 기념극 제목은 <百年의 功>으로서 임창모, 오유정 등이 출연하였고, 보다시피 정보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며,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라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인회와 청년 단체의 삼일절 연극 정보는 三一節慶祝彙聞」(『獨立新聞』, 1923.3.1), 청년회관에서 유흥회」(『韓民』, 1938.3.1)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대한애국부인회'가 개최한 공연 보도로 제목은 미상이며, 애국부인회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의 탄압을 받는다는 내용의 항일극이다. 후자는 청년 단체가 주최한 삼일절 축하 공연 보도로 연극 제목은 <삼일혼>이며, 왕형, 송민수 등과 오광심이라는 여성에 의해 연출되었고, 관객들의 호응이 높았던 작품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삼일운동이 배경이며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2명의 등장인물

26) 第十回 遠東大會喜樂會席上에서 出演한 演劇의 大意」,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자료』, 1924.2.8.

이 제시되고 있다. 극의 결말은 이 두 사람이 협력하여 일본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27]

기타 삼일절 기념극으로는 인성학교와 대한애국부인회의 공연 보도에서도 살필 수 있다.

(10) 當夜에는 仁成學校 主催로 어린이의 各種技藝와 自己네의 (凱旋)이라는 素人劇이 자미잇게 內外國觀客의 깁흔 늣김을 주엇더라

「三一節盛況」(『獨立新聞』, 1924.3.29)

(11) 上海에 잇는 우리 大韓愛國婦人會에서는 今後 各地의 婦人界를 聯絡하야 事業을 크게 發展코져 하되 此에 要하는 財政이 업셔 實行치 못하던바 同會執事長 金淳愛氏 其他 여러 會員의 苦心硏究한 結果 同婦人會員들이 演奏會를 開催하고 每張一元의 入場券을 發賣하야 그 收入으로써 會의 發展費에 充用하기로 하야 本月四日 下午七時半 當地 漢口路 慕爾堂에서 歌舞劇演奏會를 開한다는바 當日의 順序는 左와 如하더라. ▶正劇 (隔夜) ▶歌劇, 喜劇

「我愛國婦人會의 歌舞劇大演奏會」(『獨立新聞』, 1922.3.1)

(10)에서 인성학교 학생들에 의해 <凱旋>이라는 소인극 공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11)에서는 '대한애국부인회'가 주최한 연극으로 <隔夜>와 가극 및 희극 공연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삼일절은 한인들의 최대 경축일로 주제면에서는 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항일극을 공연하였으며, 장르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일절 외에도 한인 사회의 각종 모임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은 물론 구제금 마련을 위한 연극이 공연되었음은 주지한 바 있다. 이에 대

27) 윤금선, 앞의 글, 96~97면 참조.

www.kci.go.kr

해서도 구체적인 연극 정보는 나와 있지 않으나 공연 상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흥사단 원동대회 관련 자료를 보면 「제10회(원동)대회 位置, 日字, 任員, 順序」(『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문건류』, 1924.2)에서는 '演劇(正劇)'과 '演劇(喜劇)' 공연 예고가 보이며, 「第十回 遠東大會喜樂會席上에서 出演한 演劇의 大意」(『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문건류』, 1924.2.8)에서는 희극은 나와 있지 않으나 '정극'이라고 일컫는 바, <國交斷絶>이라는 공연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등장인물 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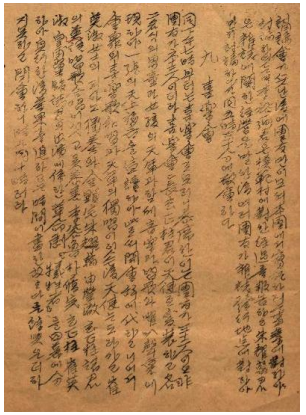
(12) [登場人物] 男子 金春植 =林孝貞/ 女子 李英子= 裴仁守/ 令息 金孝誠= 金鍾植/ 令孃 金愛姬= 孫聖實/ 男僕 못난이= 崔英淑/ 女婢 예쁜이= 朴敬植/ 料理店 下人 王三= 金鍾錫/ 女醫 安惠敬 金鳳姬/ 幕은 一家庭

第十回 遠東大會喜樂會席上에서 出演한 演劇의 大意」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문건류』, 1924.2.8)

<國交斷絶>은 안창호가 총괄 지휘하였고, 배역진은 흥사단 단원이 주축이 되었다. 등장인물 및 배경에서 한 가정사를 다룬 극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예술가'인 남편, '이상가'인 아내가 성격 차이로 서로 갈등하다가 아내의 지략으로 남편이 복종하게 된다는 일상적인 가정극이다.[28] 당시 이 공연에 대해서는 국내 신문인 「上海三一紀念(安昌浩氏 司會로)」(『東亞日報』, 1928.3.13)에서도 보도되고 있는데, 상해에서 삼일기념극이 성대히 거행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듬해인 1925년에도 원동대회가 열리고 마찬가지로 연극이 공연되었다. 「제11회 遠東大會 經過」(『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문건류』, 1925.1.28~1.29)를 보면, 대회에서 <犧牲者>라는 제목의 연극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28) 윤금선, 앞의 글, 94~95면 참조.



[그림 4] 희락회(喜楽会) 순서(「제11회 遠東大会 経過」,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문건류』, 1925.1.28)

(13) 九. 喜樂會 同 下午 七時부터는 喜樂會로 모이니 參席한 이는 團友가 三十二人이오, 非團友가 六十三人이더라. 喜樂會 會長 玄正柱 君이 天使로 變裝하고 各 二名식의 男童과 女孩의 天軍과 함께 音樂과 唱歌와 囉叭聲裏에 現하여 一張의 天上福言을 宣讀하여 此로써 開會辭에 代하고 이어서 會衆의 喜樂歌 和唱과 天軍의 獨唱이 있은 後 天使는 돌아가고 崔英淑 女士의 피아노 獨奏와 金顯宅 朱耀翰 申瑩澈 玄正柱 諸君의 英語唱歌 合唱이 있고 吳泰善 李容魯 朴履完 玄正柱 崔英淑 皇甫翼駿 諸君의 出演에 係한 革命劇 『犧牲者』를 四幕에 分하여 興行한 後 茶果를 進하고는 時間이 盡한 故로 다른 餘興은 더하지 못하고 閉會하니 時는 同 十時러라.

「제11회 遠東大會 經過」(『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문건류』, 1925.1.28~1.29)

'혁명극'이라 칭한 <犧牲者> 역시 총연출은 안창호가 담당하였고, 출연은 오태선, 이용로, 박이완, 현정주, 최영숙, 황보익준 등이었다. 연극은 총 4막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연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 외 보도에서 나타난 공연 정보로는 「耶穌降誕節」(『獨立新聞』, 1919.12.27)에서 성탄절 연극으로 대한애국부인회 회원들이 '가극'을 공연하였다는 내용이, 「仁誠學校生徒 (『獨立新聞』, 1920.1.10)에서 인성학교 학생들이 남경에서 '기이한 연극'을 공연하였고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이를 관극하였다는 내용이, 「幼女夏期演劇會 (『獨立新聞』, 1922.8.12)에서는 인성학교 여학생들이 '연극회'를 개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www.kci.go.kr

게재되어 있다.

2.2.2. '한국청년공작대'와 '조선의용대'의 항일극

앞서 제시한 바, '한국전지공작대'는 1940년 5월 서안(西安)에서 군민위안 및 일선장병위문품 모집 공연으로 <한국 용사>, <아리랑>, <국경의 밤> 등을 공연했다. 이와 관계된 공연 소식은 당시 미주 지역 민족지인 『新韓民報』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도되고 있다.

> (14) 중경에 잇난 중국신문의 게지한 六월 十八일 셔안 비우 국졔통신에 의하건대 한국청년 젼디공작대와 밋 청년용사 박동운군이 산셔 틱힝샨 젼디로 출발하기 젼 五월 二十一일 밤에 셤셔 셔안에서 중국 군인 녀름옷 운동의 의연모집을 위하야 비쟝한 연극을 공연한 의사가 실녀 잇고 그 연극의 닉용은 아릭와 갓다. 뎨一막 한국의 한 청년 용사 [박동운군의 영웅사업] 뎨二막 아리랑 고기 [평화로운 한국의 참상], 뎨三막 국경의 밤 [즉 압록강 젼션상의 분투] 이와 갓흔 연극은 본릭 그 극졍이 비상히 비쟝한 것을 당샤자가 친신으로 공연하난 신졍의틱가 더욱 비쟝하며 젼데 통신긔쟈난 비쟝한 문쟝을 가져 그 진졍을 그려닌 것이 실로 향전문단상에 드물게 보난 걸작임으로 그 젼문을 아릭와 갓치 번역한다.
>
> 한국 청년 젼디공쟉대의 비장한 연극」(『新韓民報』, 1940,8.1)

『新韓民報』에는 위 기사문에 이어 세 작품에 관한 공연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재하고 있는데,[29] 공연 정보는 실제 희곡이라기보다 중국 보도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미주 지역 보도 자료에서 동북아 한인사회의 공연 보도는 이것이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만큼 이 연극은 중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미주 한인들에게도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신문에서는 제 3막 <국경의 밤> 작품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부기(附記)를 적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 (15) 국경의 밤 즉 압록강가의 밤은 일즉이 중국문단에 올은 쇼셜을 보앗고 그 사실은 한중의용군의 전투진화이다. 셔안에셔 한국 청년젼디공작대의 공연한 국경의 밤이 혹 그 쇼셜을 근거하얏나 한다.
>
> 한국 청년 젼디공작대의 비장한 연극」(『新韓民報』, 1940.8.15)

[그림 5] 한국 청년 젼디공작대의 비장한 연극」(『新韓民報』, 1940.8.1)

위의 내용을 빌리자면, 한중의용군의 전투상을 다룬 소설이 이미 중국 문단에 있었고, <국경의 밤>은 이 소설을 번안하여 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공연 순서를 보면, (14)에 제시된 바,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일의식을 공통 주제로 한 옴니버스식 공연이었다. 이에 대한 공연 정보는 『韓國靑年』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먼저 제 1막 <한국 용사>의 등장인물 공연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6) [제2막-한국 용사] 각본」 박동운(朴東云), 한유한(韓悠韓) 「배우 목록」 일본헌병대 통역원-- 박동운(朴東云) 일본현병대장-- 나월한(羅月煥) 일본 헌병 아라카와(荒川)-김성호(金成浩) 일본 헌병 후지무라(藤村)-- 하우(何友) 일본 헌병대 공우(工友)-가자후(賈子厚) ○○파는 노인-김작생(金作生) 일본 육군 부대 통역원-전영(田榮) 중국 유격대 대장-- 배아민(裴亞民)
>
> 『韓國靑年』(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29) 「한국 청년 젼디공작대의 비장한 연극」, 『新韓民報』, 1940.8.1~15.

www.kci.go.kr

<한국용사>의 각본은 박동운(朴東云), 한유한(韓悠韓)이 집필한 것이며, 배우진들은 <국경의 밤>과 같이 대원들이 담당하였다. 극 내용은 '산시성 남영제' 전투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이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각본을 쓴 박동운이다. 극중 주인공은 일본 헌병대의 통역관으로 중국 포로들에게 통역을 담당하는 자이다. 그는 중국군 포로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일본 헌병대 대장에게 오역(誤譯)된 내용을 전달하며 중국 유격대원들을 구출해낸다. 이 연극은 박동운의 공로를 치하하고 중국 유격대에게 협조한 사실을 군중, 특히 중국인들에게 알리고자 공연한 작품이기도 하다.[30]

(17) 한국청년전지활동대는 요 며칠 동안 남쪽 정원의 실험극장에서 위문공연모금을 위한 공연을 한지 3일이 지났다. 매 공연마다 관객은 가득했다. (…) 구양(歐陽)군과 ○文林선생을 초대하여 앞좌석에 앉도록 지시하였다. 무대위에서는 "한국 용사"가 공연되고 있었으며, 적군 헌병 대장이 포로인 유격대장을 고문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러한 야만적인 폭력 행위는 실제로 관중들에게 위협감을 주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많은 여자들은 차마 "포로의 몸에 인두도 지져 붉게 달아오른 상처를 볼 수가 없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탄성을 자아냈다. 흉악하고 잔인한 적군들이 득의양양하게 있을 때, 당시 통역관이던 한국 청년은 분노의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으며, 배후에서 칼을 꺼내어 잔악한 적군을 살해하였다. 군중들의 분노도 같이 있었으며, 갈채 소리도 터져 나왔다.

『韓國靑年』(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제시된 인용문을 통해 관객 현장과 실제 공연 상황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 언급한 바 이 공연은 일본 침략으로 공조 관계에 있는 중국에게 한국 의용군의 활약상을 알리려는 목적을 지닌 극이다. 특히나 중국 포로

30) 한시준, 앞의 책, 72면.

들에 대한 한국 군인들의 협조상을 강조하고 있는 공연으로, (17)에서 객석 앞자리에 중국 고위 간부급들을 착석시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무대 위의 장면에 분노하기도 갈채를 보내기도 하는 관중의 반응을 보면 성황리에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 2막 <아리랑>은 가극에 속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18) [제3막 아리랑(가극)]「단원목록」시골 처자-심승연(沈承衍) 목동--한유한(韓悠韓) 목동 부친-김○죽(金○竹) 목동 모친-이경녀(李敬女) 목동 아들-전영(田榮) 한국이민 졸병 12인 한국혁명군 35명「"아리랑" 가극 중의 가곡」1. 서곡 제1장 2. 봄이 왔네(한국 민간 가곡, 시골처녀 독창) 3. 목가(목동 독창) 4. 한국 강산 참천리 게양식 노래 합창 제2장 5. 아리랑(한국민가) 도망자 합창 제3장 6. 한국 행진곡 혁명군 합창 7. 고향생각(한국민가) 30년 이후 목동과 시골처녀 합창 제4장 8. 한국 행진곡

『韓國靑年』(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18)의 공연 정보를 보면 가극 <아리랑>은 시골 처녀를 중심으로 한 서정적인 목가(정적인 리듬)와 혁명군들의 합창(동적인 리듬)이 교차하는 무대 구성이다. 등장인물이나 노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앞서 제시한 작품들과 달리 서정성이 부각된 극임을 알 수 있다.

먼저 개막 장면을 보면 평화로운 '아리랑 산'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연출되었다.

(19) 고요하던 극장의 무대 아래 몇 줄로 배열된 악단원들은 비록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운 고충이 따랐지만, 우리 눈 앞에 청년들은 손에 완전하지 않은 악기를 들고 나와 연주하는 모습을 본 관중들은 그를 예술의 열정가로 경의를 아끼지 않았으며, 지휘자의 숙련된 지휘에 따라 10여 명의 악단들은 장렬하고 감동적인 소리를 들려 주었다. 막이 열리고, 무대 위에서 "아리랑"의 높고 정엄한 산의 풍경이 펼쳐졌으며, 순진한 시골 처

www.kci.go.kr

자 한 명이 손에 바구니를 들고 서서히 나왔으며, 한국인 민곡인 “봄이 왔어요”를 불렀다. 그 소녀는 노래를 부르며 들꽃을 따고 있었다.

『韓國靑年』(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위의 장면에 이어 한 목동이 출연한다. 그는 양떼를 몰며 목가를 부른다. 이어서 두 남녀는 조국의 대자연 속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어디선가 전쟁의 화염이 솟아오르고 평화롭던 강산이 붉은 피로 물들게 된다. 이 장면은 바로 조선이 일제강점 하에 놓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 산’ 정상에 일장기가 꽂히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목동은 조국의 원한을 갚을 각오로 입대를 결정하며 아내와 이별을 고하게 된다. 조국을 떠난 목동은 압록강 부근의 ‘한국혁명군에 입대하여 투쟁’에 가담한다. 그러나 결국 조국은 상실되고 이국을 떠도는 유랑민 신세가 된다.

(20) 고향은 상실되었고, “아리랑 산 위에서는 한 무리의 한국 난민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리랑”을 불렀으며, 노래 소리는 은은하게 퍼져나갔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슬프고 간절하였다. 원망스럽다! 망국의 비애! 그들은 적들에게 파멸당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망국의 노예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동북 지역으로 도망쳐 왔다. 그들은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지만, 조국에 대한 마음은 영원히 분노로 넘쳤다! 혁명지사들은 비밀리에 조국의 부흥 사업 활동을 하였다. 비록 한 나라에 의해 파괴되었고, 혁명은 하나같이 실패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韓國靑年』(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20)은 마지막 종막 장면으로서 35년 이후의 풍경이다. 청년이었던 목동과 시골 처자는 노인으로 변해 있다. 목동은 ‘아리랑 산’에서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던 추억을 상기하면서 다시금 혁명군에 가담하여

투쟁하나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는 비극적인 결말이다.

<아리랑>은 보다시피 한국적인 무대 배경 하에 망국의 한과 일제에 대한 분노, 이민자의 애환을 노래와 무용, 연극 등을 통해서 드러낸 연극이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 <아리랑>의 무대 기법에 대한 연극평이 게재되어 있어 주목된다.

(21) 줄거리 역시 비극과 희극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격해지며 완강할 때도 있었고, 억압을 견디다 못해 복수의 결심이 마비가 되었으며, 희망의 눈물이 교차되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하게 하였다. 또한 조국에 대한 사랑 ,부자의 사랑, 동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해 내었다. 동시에 망국의 아픔, 생이별의 고통, 유랑생활의 고난, 사별의 아픔 등의 모든 인류의 감정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연기자들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략에 관한 모든 감정을 표현해 냈다는 것이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모든 항전예술선전의 영혼으로 여기고 있으며, “절실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지성”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韓國靑年』(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인용문에서는 격해지며 완강할 때도 있고, 희망과 눈물이 교차하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케 한다고 평했다. 또한 조국과 동지, 부부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망국의 아픔, 생이별의 고통, 유랑생활의 고난, 사별의 아픔 등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들을 희비의 엇갈림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호평이다. 연기자들의 연기력에 대한 비평에서는 ‘절실함’과 ‘지성(知性)’이 사람을 감동케 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연기의 진성성과 절제된 표현력에 대한 평가라고 보여진다. 또한 장르적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비평을 가하고 있다.

www.kci.go.kr

(22) 연극과 가극을 연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해, 보통 연극이 가지고 있는 각종 조건들 이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핵심은 "노래"(음악 있는)와 "춤"이다! 노래는 언어를 박자에 맞추어 표현되는 것으로 감정이 살아있는 요소이다. 그러기 때문에 무대 전체적인 조화는 매우 어려운 것이며, 사소한 사항들이 협조 되지 않는다면 바로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관중들에게 "서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韓國靑年』(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22)의 평가는 종합예술로서의 연극적 특성에 대한 견해이면서, 가극이라는 장르의 특징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즉 이 장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래와 춤이라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화장, 효과, 조명 및 인물들의 표정 연기가 함께 혼합되어 효과적이었으며 <아리랑>의 연출 효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손색이 없었고, 바로 이점이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리랑>에 대한 평자의 반응을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인데 이를 보면 나름대로 호응을 얻었던 작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나 참고로 제시할 것은 이 공연에서 중국인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23) [A. 악대 명단] 총 지휘- 한유한(韓悠韓) 지휘자-전덕의(傳德衣), 고흥강(高興崗) 피아노]-맥리(麥里), 장동강(張東江) 바이올린-양(梁)선생 SOXSOPHE-황자현(黃者賢) GUITAR-범리(范里) 2. 호(胡)-양석산(楊錫山), 장(蔣) 제2부」 제2호(胡)-당승지(唐承和), 유사준(劉士俊), 조일풍(趙一風), 손위붕(孫威崩), 서천일(徐天一) 제1부 하모니카- 고흥강(高興崗), 진초(陳超) [제2부] 하모니카- 황(黃)-수(壽), 이어(李魚) 제3부 하모니카-홍(紅)-, 장봉원(張鳳元) 케스터네츠-김만덕(金萬德), 왕자(王者) bass 하모니카-- 범리(范里), 상(常)-, 진덕준(陳德俊) 종-이인(李仁) 목어-장하년(蔣何年) -갈봉(葛烽) ◯북-왕인개(王仁凱) 작은북-양정당(楊正堂) 중국x-오영방(吳榮芳) [B. 합창단] 1. 형생종대(衡

生總隊) 합창단 2. 은연(銀聯) 합창단 3. 연합 합창단 4. 청년합창단

『韓國靑年』(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위에 제시된 악단 구성원들의 명단을 보면, 실제로는 한인들이 주체가 되어 개최한 연극이었으나 중국인들도 참여한 한중연대의 공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3막에서 공연된 <국경의 밤>의 등장인물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제1막-국경의 밤] 한국청년전지활동대 단체 창작 단원 목록」 일본초병-나월환(羅月煥) 한국혁명군-하우(何友) 한국 혁명군-배아민(裴亞民) 동북의용군-전영(田榮) 일본군관-현이평(玄以平)

『韓國靑年』(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제 3막인 <국경의 밤> 배우진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등장인물의 정보를 통해서 '일본군'과 '한국 혁명군'의 대립 상황을 드러낸 극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위에 이어지는 극정보를 보면 극 배경은 압록강변 전선으로 나타나며 한중 양국의 독립군 청년들이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 대항하는 내용으로서 조국의 자유 독립을 쟁취하고자 고군분투하는 활동상이 주요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 연극에 대한 관중의 반응도 높았음을 알 수 있다.

(25) 단막극이 연출되었다. "국경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한중 국경 지역에서 한국 혁명군이 항상 본국의 혁명투쟁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업적을 묘사하고 있었다. 제1막에 뒤지지 않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 연극이 끝날 무렵은 이미 깊은 밤 시간이었다. 강당의 전 동지들은 흥분을 느끼고 위로가 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진영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용감했던 한국 혁명 청년의 영웅스런 자태가 깊은 인상을

www.kci.go.kr

남겼다.

『韓國靑年』(韓國靑年創 戰地活動隊, 中國文化服務社, 1940.7)

전지공작대의 공연은 한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관객까지도 겨냥한 공연이었다. 실제 전투를 치루며 일본과의 항전을 경험한 한국과 중국 군인들, 망국의 한을 지닌 기타 한인들과 일반 중국인들이 객석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당대의 처지를 반영하는 극 내용에 (25)와 같이 관객들의 공감도 컸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계림 지역 '조선의용대'의 공연인 <아리랑>과 <조선의 딸>의 공연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같은 날 저녁 시내 신화희원新華戲院에서는 가극 「아리랑」과 연극 「조선의 딸」을 공연하였다. 이 공연은 2일과 3일에도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연극은 조선의용대 선전대대장 김창만가 한 달여 동안 준비해서 상연한 것이었다.

「朝鮮民族的光榮史, '朝鮮的女兒'觀後」, 『救亡日報』, 1939.3.3)

위의 내용은 조선의용대의 <아리랑>과 <조선의 딸> 공연 예고이다. 앞서 살핀 바, 이 연극들의 공연 목적은 조선 3 • 1운동 20주년을 기념하고 동시에 '상이군인의 벗되기' 운동에 호응하려는 데 있었다. 당시 인력과 물자가 모두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의용대가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까지는 국내 예술계 인사들의 열렬한 지원이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31]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공연한 <아리랑>이 '조선의용대'에 의해서도 공연되었다는 점이다.

31) 「조선 민족의 역사를 담은 '조선의 딸'을 보고」, 『救亡日報』, 1939.3.3.

(27) 아리랑의 선율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아니, 아름답다기보다는 뭔가 침통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가 묻어나오는 노래였다. 조선 민족의 고통을 담은 듯한 아리랑의 선율은 망국민의 한을 노래한 것처럼 들렸다. 아리랑의 선율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중국인의 상심을 대신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다. 조선의 형제들이여, 무거운 행낭을 벗어버리고 나고 자란 형제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형제들의 땅으로 속히 돌아가라. 자유와 해방을 되찾은 뒤 그곳에 영원한 행복을 노래하는 기념비를 세워라.

조선의용대의 공연을 보고 난 감상」(『救亡日報』, 1939.3.3)

보도 일자를 보면, 가극 <아리랑> 공연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보다 '조선의용대'가 1년 정도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다. (27)에서도 보이는 바, 음악과 서정성, 혁명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서 조선의용대 뿐만 아니라 전지공작대에서도 주요 공연 레퍼토리로 삼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한편 「조선의용대의 공연을 보고 난 감상」(『救亡日報』, 1939.3.3)에서는 <아리랑>에 대한 관람 후기가 나타나 있어 주목된다.

(28) 가극 '아리랑'의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관중석은 금세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무대장치와 배우들의 복장 그리고 전혀 새로운 느낌의 선율을 타고 극장 가득히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는 고향을 떠나 이역을 유랑하는 조선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였다. 무대 한가운데를 차지한 산봉우리와 거기에 나있는 조그마한 오솔길은 극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듯 황량한 모습이었다. 농민과 청년으로 분장한 배우들의 연기는 썩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관중들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다. 늙은 농민과 소녀가 무대에 등장하면서 보여준 우울하면서도 침통한 표정은 아리랑 고개를 한번 넘으면 영원히 조국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조선 민족의 운명

www.kci.go.kr

을 대변하는 듯한 매우 뛰어난 연기였다. (…) 조선 민족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가극 '아리랑'은 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조선의용대의 공연을 보고 난 감상」(『救亡日報』, 1939.3.3)

(28)에서는 무대장치, 의상, 음향 효과, 연기 등에 대한 평과 함께 극의 전언에 대한 평가도 나타나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 호평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리랑>의 극적 완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의 딸>은 관객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군인들을 위문하며, 군물자를 마련하려는 목적과 중국인들에게 조선인의 비참한 처지와 항일 의지를 알리려 의도로 공연된 작품이다. 이 공연도 한인들이 주체가 되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중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인들과 합작한 작품이기도 하다. 일례로 무대에 올랐던 연기자는 조선인 외에도 제5로군 총정치부 국방예술사의 중국인도 참여하는 등 <조선의 딸>은 한중연대 강화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 연극이었다.[32]

이 작품은 조선의용대 선전대가 한 달여 동안 준비해서 상연한 것으로서[33] 2막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9) '조선의 딸'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에 신음하는 조선 민족의 고통과 반항을 그린 작품이다.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조선의 한 소녀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늙은 할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 커피점에서 시녀로 일하게 되었다. 영혼을 팔아야 하는 고된 생활은 오히려 소녀가 조국을 위해 복수할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복수의 기회가 왔지만 소녀는 사랑하는 조국과 연로한 할아버지를 남겨둔 채 저승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소녀의 무덤은 장래 조선 민족해방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 연극의 줄거리이다.

「조선 민족의 역사를 담은 '조선의 딸'을 보고」(『救亡日報』, 1939.3.3)

32) 염인호, 앞의 책, 72면.
33) 염인호, 위의 책, 74면.

보다시피 이 연극은 일제의 압박과 착취, 조선 민족의 고통과 반항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救亡日報』는 이 공연의 홍보에도 적극적이었으며. 1939년 3월 3일자에는 위와 같이 「조선의용대의 공연을 보고 난 감상」(『救亡日報』, 1939.3.3)이라는 기사명으로 각계각층의 공연평을 대대적으로 실었다. 위의 평문은 당대 유명한 애국 시인 애칭(艾青)[34]의 글로서 인용문 다음에 이어는 내용에서는, 가슴에 가장 와 닿은 것은 연극 전편에 흐르고 있던 강력한 혁명정신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압박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반항이라는 작용과 반작용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 혁명정신은 보는 이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고 평하였다. 또한 같은 지면에 게재된 태양(太陽)이라는 필자는 <조선의 딸>이 극본의 완성도 면에서는 뒤떨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연에서는 이야기의 전개, 등장인물의 묘사, 무대 장치 등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계림에서 공연되었던 여러 연극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었다고 극찬했다.

한편 이 극에 대한 비판적인 평도 보이는데, 준(俊)이라는 필자는 "연기자들의 중국어가 서툴러 대사가 생경하고 막간이 너무 길어 관중의 분위기를 일관되게 고조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선전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왕영(王瑩)이라는 평자도 1막에서 터전에서 쫓겨나는 할아버지가 울분을 참지 못해 도끼로 노목을 찍어버리는 장면은 시적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장면이었으나, 극본의 전체적인 짜임새와 막간의 처리는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으며, 제2막에 등장하는 일본군 사단장의 대사와 동작은 신분에 맞지 않는 느낌이었고, 일본군 내부의 반전운동을 묘사한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하는 등[35] <조선의 딸>이 갖는 한계도 지적하였다.

34) 黃南翔, 앞의 책, 41면.
35) 「조선 민족의 역사를 담은 '조선의 딸'을 보고」, 『救亡日報』, 1939.3.3.

www.kci.go.kr

위에 제시된 감상평을 보면 부분적으로 극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연기 등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보인다. 또한 예고부터 감상평까지 신문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된 작품으로서 관객들에게도 그만큼 인지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러시아 지역 한인의 연극 활동

3.1. 공연 주체와 공연 목적

3.1.1. 민족 단체의 연극 활동 : '권업회'

여기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해삼위) 지역의 한인 신문인 『勸業新聞』 자료를 중심으로 러시아 지역 한인들의 공연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이 신문은 항일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勸業會)'[36]의 기관지로서 이 단체가 주체가 된 공연 정보가 주로 게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보도를 통하여 연극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30) 3월 1일 저녁 한민학교에서 연극(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주재자 장기영(張基永), 이흥삼(李興三) 배우 이의순(李義橓), 채계복(蔡啓福), 정재관(鄭在寬), 삼일여학교생도, 한민학교생도, 부인회 등이 가담했다. 입장권 1등 400留, 2등 250留, 3등 100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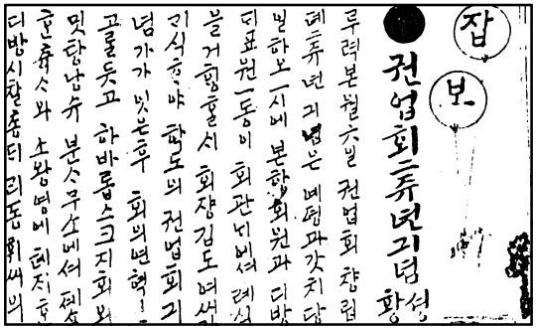
한국독립선언기념회에 관한 건」(『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기타 보고서』, 1920.2.17)

36) '권업회'는 1919년 이종호(李鍾浩) · 김익용(金翼鎔) · 엄인섭(嚴仁燮) 등에 의해 결성되었고 초대회장에 최재형(崔才亨), 부회장에 홍범도(洪範圖) 등이었다. 본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해삼위)의 신한촌에 두었으며, 주요 도시에 지회와 분사무소를 두었다. '권업회'는 항일구국운동이 목적이었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기관지 『勸業新聞』을 창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족정신을 고양시켜나갔다(박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73면).

(31) 명일은 음력 명절 추석인 고로 신한촌 안 각 사회와 한민학교에서 휴가하며 또 모 씨의 발기로 이날 아침 八시부터 일반학생으로 운동회를 실행한 후 저녁 七시부터 시작하여 권업회 종람소 안에서 재미있는 연극을 논다더라.

가배절과 신한촌」(『勸業新聞』, 1913.9.14)

(32) 六일 권업회 창립 제二주년 기념은 (…) 이동휘 씨의 축하 전보를 차례로 낭독하고 회원 모모 씨와 내지와 북간도로부터 새로 온 모모 씨의 간절한 축사를 마치고 학도의 창가를 부른 후 권업회와 각 지회를 위하여 만세를 三창 폐식하였고, 인하여 동 五시에 명예 회원 중 듀꼬브, 뽀드스따빈, 뽀라놉스키 제씨가 내참하여 다시 다과회를 열고 권업회의 장래를 위하여 간절한 축사를 교환하며 권업회를 위하여 만세를 연창한 후 (…) 뒤에 여흥으로 몇몇가지 풍속 연극과 일인이 한국 학생을 학대하는 일이며 또 잡가 등으로 재미있게 놀았는데 관광 남녀가 五백여 명에 달하여 동 十二시에 폐회하였으며, 신한촌에서는 집집이 권업회 기념등을 높이 달고 다 축하하는 뜻을 표하였더라.


잡보
권업회二주년기념성황

[그림 6] 권업회 二주년 기념 성황」(『勸業新聞』, 1913.12.21)

권업회 二주년 기념 성황」(『勸業新聞』, 1913.12.21)

www.kci.go.kr

(30)은 삼일절 기념극 정보로 권업회 회원, 학생, 부인회 등이 공동 참여하여 연극을 공연하였다는 내용이다. (31)은 신한촌 한인 사회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연극을 공연하였음을 보여준다. 비록 이국에 거하고는 있지만 추석을 맞이한 한인들은 운동회나 연극 등을 거행함으로써 민족의 명절을 기념하였다.[37] (32)는 권업회 창립 2주년 기념식 보도로서 한인 민족 단체인 '권업회'를 축하하는 행사 뒤에 연극을 공연하였다는 소식이다. 또한 연극 내용을 보면 항일소재의 극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민족의 명절 및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은 한인들이 결집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연된 연극은 한인들을 결속하고 그들의 여흥을 돋우는 역할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권업회를 중심으로 한 공연은 평소에도 자주 행해졌음을 볼 수 있다.

> (33) 본항에 모모 제씨가 합의하고 인심을 감동케 하기는 연극 같은 것이 없다하여 재작일에 연극할 만한 재료를 수집하여 권업회 종람부내에서 유쾌하게 놀았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하였다더라.
>
> 연극설시」(『勸業新聞』, 1912.9.8)

> (34) 본촌 모모 제씨가 발기하여 지나간 九일 밤에 권업회 종람소 안에서 인심을 경성한다고 연극 여러 가지를 놀았는데 구경하는 사람은 남녀가 오륙백 명에 달하였다더라.
>
> 종람소 안의 연극」(『勸業新聞』, 1912.12.29)

위 기사문을 보면 당시 권업회에서 운영하는 종람소는 한인들의 교류장소로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개최된 연극 공연에 관

37) 「가배일의 신한촌 경황」, 『勸業新聞』, 1913.9.21.

객이 다수 모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제시된 내용 외에도 전에 없던 큰 연극」(『勸業新聞』, 1913.10.12), 「새해에 재미있는 연극」(『勸業新聞』, 1914.1.11), 「연극을 놀아」(『勸業新聞』, 1913.3.23) 등에서도 권업회의 연극 공연 소식을 보여주고 있어 이 단체의 연극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개의 연극 공연은 의연금 모금이 목적인 경우가 많았다.

> (35) 우리의 이목되는 勸業新聞사는 재정 곤란으로 비상한 고통을 당하는지라. 한국 사람된 우리가 어찌 이를 수수방관 하리오. 그러므로 만일의 보조라도 될까하여 아력(러시아력)으로 오는 열닷새날 밤 일곱시부터 시작하여 그전에 도무지 없던 특별한 새 연극을 놓으니 의리 많으신 우리 형제들은 공익도 위하고 구경도 할 겸하여 많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
> 「구경하러 많이 오시오」(『勸業新聞』, 1913.4.20)

> (36) 하발포(하바로프스크)의 신덕학교는 한인 자제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지 이미 五, 六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유지는 일반 동포의 의연으로 하다가 중간에 재정 곤란을 인하여 폐지할 지경에 이른지라. 당지 전대국씨는 이를 염려하여 곧 자기의 정력과 재정으로 수년간을 유지케하고 요사이에는 교무를 일신 확장하기로 하여 권업회 주무 제씨가 연극회를 설행하여 일반 동포의 풍속을 개량케 하며 그 수입으로 학교 경비를 쓰게 하며 또 학교 설비와 모든 사무를 일신 개량하는데 이는 당지 권업지회의 중흥과 함께 교육 발전에 먼저 착수함이라더라.
>
> 신덕학교의 확장」(『勸業新聞』, 1913.12.27)

(35)는 권업회가 운영하는 권업신문사의 경비를 모금하려는 목적에서 연극을 공연한다는 보도이다. 또한 (36)은 한인의 민족 교육기관인 '신덕학교'[38]의 재정을 돕기 위한 연극회 소식이다. 특히 한인 자제의 교육과 관련하여 의연금 모금을 목적으로 한 공연은 이 외에도 자주 보도되고

www.kci.go.kr

있는 편인데. 김씨를 위하는 연극」(『勸業新聞』, 1913.11.23), 병든 학생을 위하여 (『勸業新聞』, 1913.11.23), 「연극 일자와 처소 변경」(『勸業新聞』, 1913.11.26) 등에는 당시 '동양대학교'에서 수학하던 한인 학생들의 학비 모금을 위하여 연극을 공연했다는 보도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빠비우씨 환영과 연극」(『勸業新聞』, 1912.12.15), 「연극광고」(『勸業新聞』, 1913.12.7) 등에서도 한민학교[39] 재정 지원을 위한 연극 공연 소식이 보이는데, 이를 보면 당시 이 지역에서는 한인 학생 및 한인 학교를 위한 의연금 모금을 목적으로 연극이 자주 공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연 주최측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지역 한인사회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위한 연극, 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극의 경우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7) 본학교에서 금일 하오 七시부터 내일 상오 二시까지 연극회를 개하오니 유지청군자는 왕림하시옵소서. 一. 군악대 二. 러시아 풍속 연극 三. 남녀학생의 국가 四. 러시아 창가 五. 무도 입장권은 二원으로 二十五전까지오니 속히 매득하시옵소서. 본 연극의 목적은 학생의 지, 필, 묵, 서책가로 보조하기 위함. 한민학교교사 강구리 고백

「좋은 구경들 하시오」(『勸業新聞』, 1912.11.3)

(38) 동양대학교 학생 와실니김, 메포지김 양씨가 교장 보쓰따빈 씨의 찬조로 룩력 본월 이십육일 밤에 한민학교 안에서 러시아 연극을 설행한

38) 「권업회의 정기총회」(『勸業新聞』, 1914.3.28)에서 "보흥학교 니골랍수크(니콜라옙스크) 신덕학교 허발포(하바로프스크) 양성학교 허발포(하바로프스크) 인신학교 소왕령(니콜스크 우수리스크) 대진학교 탕랑수 신한학교 수청구허○ 화동학교 도비허(아누치노)" 등의 기사를 보면 권업회는 명칭지방에 7군데에 학교를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39) 1911년 창립된 권업회는 이상설, 유인석을 주축으로 민족주의 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해 먼저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 있던 한인학교인 계동학교를 확대・개편하여 한민학교를 설립하고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민족주의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삼았다(『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4卷, 國家報勳處, 1987, 812~813면).

다더라.

한민 러극」(『勸業新聞』, 1912.12.8)

(37)의 필자가 '한민학교 교사'로 나타나 있고 (38)의 경우는 학교 교장이 찬조한 경우로서, 비록 명시되지 않았으나 학교측, 즉 학생들이 참여한 연극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공연 주최측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신문사의 성격이나 편집 방향이 공연 자체에 대한 보도보다는 구제금 마련이라는 동포애를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외 의연금 마련을 위한 공연 보도로 「소방회를 위하여 연극」(『勸業新聞』, 1914.7.26)에서는 소방회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극을 공연했다고 전하고 있어, 한인사회 각 기관의 재정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연극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연금 모금을 위한 연극 공연 후에는 매번 기부자들의 명단과 함께 모금액을 밝히고 수익금의 용도를 밝히고 있는데,[40] 의연금은 권업회가 주축이 되어 목적한 바 재정을 비축하고 동포들의 결속을 위한 운동회 및 각종 행사의 경비로도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41]

지금까지 살핀 『勸業新聞』에서 나타난 바로는 공연 주최가 '권업회'라는 민족 단체와 산하 교육기관 등임을 알 수 있으며, 중국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인사회의 주요 기념일에 공연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공연 목적은 대개 구제를 위한 공연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지역과 같이 항일의식 고취 등을 기하고자 한 경우는 권업회 二주년 기념 성황」(『勸業新聞』, 1913.12.21)에서 항일소재극을 공연했다는 내용이 보이는 것 외에 이 부류의 자료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勸業新聞』 외에 「한국독립선언기념회에 관한 건」(독립운동가자료 기타 보고서, 1920.2.17)에서도 한민

40) 「광고」, 『勸業新聞』, 1912.9.15; 「광고」, 『勸業新聞』, 1913.3.2.

41) 「감하의연」, 『勸業新聞』, 1913.6.22.

www.kci.go.kr

학교에서 삼일절 기념극으로 항일극을 공연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에서도 민족적인 사안의 연극을 공연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지역과 달리 삼일연극에 대한 보도도 희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따로이 당대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인 상황과 한인들의 처지 등을 재고하면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광고」(『勸業新聞』, 1912.9.15)를 참고로 살펴보면 "음력 전월 二十五일 만수절 기념회의 비용과 여흥으로 한 연극 준비를 위하여 일반 유지동포에게 의연을 모집한 바 이제 그 의연하신 이의 성명과 수입, 지출한 금액이 아래와 같으니"라는 기사와 함께 기부자의 명단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연극 예고와 함께 이러한 명단 제시는 종종 볼 수 있어 이곳 한인사회의 공연은 의연금에 의해 개최되고, 여기에서 거둔 수익금은 또 다른 의연금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번 수백 명의 관객이 몰렸다는 기사들은,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었던 당대에 공연을 보러오는 관객이 그만큼 고정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보도라고 하겠다.

3.1.2. '연극단'의 연극 활동 : 소인극단 및 전문극단

러시아의 한인사회에서는 권업회 등의 민족 단체 외에 체계적인 극단을 조직하여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위로부터의 사회주의화'가 진행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에 걸쳐 러시아 원동의 한인사회에서는 '소인예술단'이라고 일컫는 많은 예술집단이 학교, 공장, 농촌, 어촌 등지에서 생겨났다. 콜호즈를 비롯해 공장이나 탄광촌, 어촌에서도 문화 계몽사업의 일환으로 소인예술단이 속속 출현했고 이들은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며 노래와 춤, 연극 등으로 순회공연을 했다.[42] 여기에서는 원동 시기

42) 김보희,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소인예술단의 음악활동』, 한울, 2009, 41면.

『선봉』을 대상으로 그 공연 활동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7] 해삼시에 있는 원동변강의 어업 직업동맹 중앙위원내 예술단원들이 꼰째르트에서 조선 한삼춤을 추는 장면(『선봉』, 1937.5.15)

(39) 바라바시면 시지미촌구역에 일곱곧의게몽소가 있으나 경제부족으로 항상곤난하든중 당디공청회에서는 연극을 흥행하야 수백명관광자의 입장료를 받아 각게몽소야학에 치중하엿다고

「연극놀아야학을돕다」(『선봉』, 1921.1.16)

(40) 수청구역 다우지미공청회에서는 구락부사업을위하여 순회연극단을조직하고 각 농촌으로순회한결과에 빈농민군중에게문화풍습에대한 새롭은감동을많이주엇으며 따라서 그들의넘치는환영과뜨겁은 동정으로 삼백여원금전을수입하엿으니 구락부사업이 앞으로더욱발전되리라고

다우지미 구락부사업은 잘 되리라」(『선봉』, 1930.2.14)

(39)는 야학교의 경비 마련을 위해 연극을 공연했다는 보도이며, (40)은 구락부 사업을 위한 문화계몽극을 공연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공연은 제시된 예문 외에도 「붉은빛이라는 연극으로 주민을 깨워주다」(『선봉』, 1926.3.13)에서는 '문화사상과 혁명정신'을 선전하고자 <붉은 빛>이라는 연극을 공연했다는 내용이 보이며, 「매혼문제로 연극흥행」(『선봉』, 1926.4.11)에서는 사회문제를 직접 소재로 하여 계몽극을 개최했음을 볼 수 있다.[43] 이렇듯 연극단들은 선동적인 연극으로 청중들의 사상을 교육하거

43) 윤금선, 앞의 글, 97~98면 참조.

www.kci.go.kr

나, 계몽적인 내용의 공연으로 주민의 생활을 개선코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한인사회 각 기관들의 재정적인 보조를 위하여 연극을 공연하였다.

위와 같은 연극 활동은 한까이의 '야따파크순회연극단'(한까이를 순회하고서」, 『선봉』, 1930.2.5), 소왕령 '사범학교 학생극단'(「소왕텽사범학교 순국단(농촌련락반)극 , 『선봉』, 1930.5.30), 하바로프스크 '고려로력청년극단'(「고려로력청년의 극단조직」, 『선봉』, 1931.9.10) 등 다수의 연극단에 의해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듯 연극단 결성 및 순회공연이 활성화된 것은 연극이 소위 '교양사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장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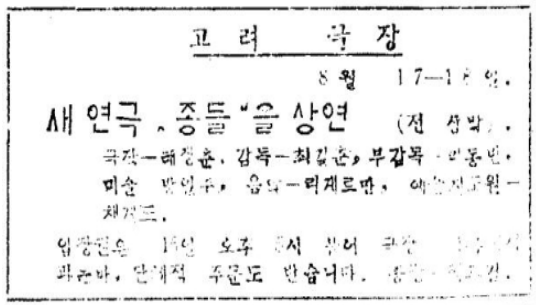
> (41)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의 생활은 새롭은 향상, 문화의발전은 그에 일치합류(一致合流)하는 예술-특히무대예술(舞臺藝術)을요구합니다. 무대예술은 사람의 생활에가장직접인(이것은 예술의표현형식에 한한말임)예술부문중중요한한나이어니 우리생활에서의군중의 관흥(觀興), 청흥(聽興), 심미(審美), 불○ 등을보다더 예민하게 니르키는동시에군중적으로 그들을 조직하여 예술이 끌을 수 있는 길로 제휘하여목적을 일우는역할이제일큰것으로 보아 그러합니다.
>
> 고려노력청년의 극단조직」(『선봉』, 1931.9.10)

(41)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극이 지닌 종합예술로서의 측면을 주시한다는 점이다. 즉 관객의 '관흥(觀興), 청흥(聽興), 심미(審美)' 등을 자극한다는 종합예술적 성격이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보고, '사회주의건설'을 실행하는 데 연극이 주요한 도구라는 주장이다.

한편 러시아 원동 지역의 고려인 사회의 문화 중심은 한인들의 수도로 불렸던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이었다. 그 중에서도 스탈린 구락부는 '신한촌의 등대'로 일컬어질 만큼 활동의 중심지였다.[44] 신한촌 스탈린 구락

44) 「국립조선극장의 연혁: 극장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레닌기치』, 1992.8.28.

부에서는 3・1 독립선언일, 메이데이, 8・29 국치기념일 등을 기념하는 집회와 문화행사, 연극 공연이 펼쳐졌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스탈린 구락부에서 고려인 촌락을 순회하며 레닌의 사상과 10월 혁명의 뜻을 선전하는 문화선전대가 조직되었고, 훗날 고려인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고려극장이 창립되었다는 점이다.[45] 즉 1932년 창립된 고려극장은 그 산하에 '고려극단'(조선극단)을 두고 전문적인 연극단체로 자리잡았다.[46]


고 려 극 장

8월 17—18일.

새 연극 „종들"을 상연 (전 상박).

극장—레정훈, 감독—최길춘, 부감독—리동빈, 미술 방일주, 음악—리게르만, 예술지도원—채경도.

입장권은 15일 오후 5시 부터 극장 [illegible] 파는바, 단체적 주문도 받습니다. [illegible]

[그림 8] 고려극장 광고(『선봉』, 1938.8.15)

> (42) 과거나 현재의 사회상을 거즛없이 표현하며 생을 옳게 조직하여 군중으로하여곰 앞으로 옳은 길을 찾아 나가도록 방조, 인도하여 주는 것이라야할것임은 길게 말할필요조차 없다. 그리하여 이(예술)한부분에서의 전문적책임을 가진 『원동고려극단』의 앞에는 현시 고려내지에서 계속진행되는 혁명적투쟁에서하던지 쏘베트동맹내 고려로력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각방면에서 어떻게 참가하며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 진상등을 일반로력군중에게 보이어줌으로서 그들로하여곰 계급적사상과 혁명적 투쟁을 더굳세게하며 국제교양을 더 넓이, 더 깊게 받도록하는 동시에 원동에 널리어 있는 많은 소련 연예부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의 예술적 긔술을 향상시키어야 할 과업이 서로 있는것이며
>
> 「극-장평동의 횃불에 대하여」(『선봉』, 1933.10.3)

45) 연성용, 『신들메를 졸라매며』,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3, 10~11면.

46) 「비로비드잔 시내에 고려극단 조직」, 『선봉』, 1937.5.15; 단원 채용에 신중한 주목을 돌리라」, 『선봉』, 1933.12.5; 조선극단은 순회한다」, 『선봉』, 1935.7.15.

www.kci.go.kr

(42)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극단 역시 연극을 통해 민중의 사상성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우선적인 극단이었으며, 「조선극단은 순회한다」(『선봉』, 1935.7.15), 조선극단은 어부들의 문화상 발전에 많은 방조를 주었다 (『선봉』, 1935.9.4), 「열성적으로 사업하는 오소단체」(『선봉』, 1937.1.24) 등을 보면 이 극단은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목적한 바 사회주의적 이념을 곳곳에 알리는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삼일절 기념극과 같은 민족의식 고취의 공연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러시아의 동화정책 등으로 중국과는 또 다른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3.2. 연극 내용 및 특징

3.2.1. '권업회'의 자선극

앞서 살펴 본 권업회 주체의 주요 공연 정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권업회 연극 관련 보도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정리된 자료를 통해 나름대로 공연 상황을 재구해 보고자 한다.

[표 2] '권업회'의 주요 공연 목록

번호	게재지	연월일	기사명	연극 제목	기타
1	勸業新聞	1912.9.8	연극설시	무제(연극)	권업회 종람부
2	勸業新聞	1912.11.3	좋은 구경들 하시오	러시아 풍속 연극	문구류 보조금, 한민학교
3	勸業新聞	1912.12.8	한민 러극	무제(연극)	학생 보조금, 한민학교
4	勸業新聞	1912.12.15	빠비우 씨 환영과 연극	무제(러시아 연극)	학생 보조금, 한민학교
5	勸業新聞	1912.12.29	종람소 안의 연극	무제(연극)	권업회 종람소
6	勸業新聞	1913.3.23	연극을 놀아	한국연극	
7	勸業新聞	1913.4.20	본사를 위하여 연극을 논다	무제(연극)	신문사 보조금, 권업신문사
8	勸業新聞	1913.4.20	구경하러 많이 오시오	무제(새 연극)	신문사 보조금, 권업신문사

9	勸業新聞	1913.9.14	가배절과 신한촌	무제(연극)	추석 기념극, 한민학교
10	勸業新聞	1913.9.21	가배일의 신한촌 경황	풍속개량과 역사적 연극	추석 기념극, 한민학교
11	勸業新聞	1913.10.12	전에 없던 큰 연극	무제(재미있는 연극)	권업회관
12	勸業新聞	1913.11.23	김씨를 위하는 연극	무제(연극)	한인학생 보조금, 권업회 종람소
13	勸業新聞	1913.11.23	병든 학생을 위하여	무제(연극)	한인학생 보조금, 권업회 종람소
14	勸業新聞	1913.11.26	연극 일자와 처소 변경	무제(연극)	한인학생 보조금, 고로드 연극장 '나로드니돔'
15	勸業新聞	1913.12.21	권업회 二주년 기념 성황	무제(연극), 풍속극	권업회 창립 기념극, 종람소
16	勸業新聞	1913.12.27	신덕학교의 확장	무제(연극회)	한인학생 보조금, 권업회 종람소
17	勸業新聞	1914.1.11	새해에 재미있는 연극	무제(한국식 연극)	권업회관
18	勸業新聞	1914.1.18	연극회의 성황	<혈죽>, <사실>, <파혼>, <갑인대몽>	권업회관
19	勸業新聞	1914.2.15	五십년 기념 발기회 후보	무제(연극회)	한인의 러시아령 거류 50년 기념극
20	勸業新聞	1914.7.6	소방회를 위하여 연극	무제(연극회)	소방회 보조금, 동양학교 앞 연극장
21	독립운동가 자료	1920.2.17	한국독립선언기념회에 관한 건	무제(연극)	한민학교

[표 2]에 제시된 공연 사항을 보면 공연 목적은 잘 드러난 편이나, 실제 연극 정보는 빈약하다. 극 제목조차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막연히 연극을 공연했다는 소식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략한 정보를 통해 초기 공연상을 보면, 계몽성과 오락성을 드러내는 연극이 올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예로 먼저 연극설시 (『勸業新聞』, 1912.9.8)에서는 "인심을 감동케 하기는 연극 같은 것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연극을 "유쾌하게 놀았다"고 보도하였으며, 「종람소 안의 연극」(『勸業新聞』, 1912.12.29)에서도 "인심을 경성한다고 연극 여

www.kci.go.kr

러 가지를 놀았는데"라는 내용이 게재되었으며, 신덕학교의 확장 (『勸業新聞』, 1913.12.27)에서는 "연극회를 실행하여 일반 동포의 풍속을 개량케"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본사를 위하여 연극을 논다 (『勸業新聞』, 1913.4.20)에서는 "연극회를 연다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극을 힘써 준비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곳 한인 사회에서의 연극은 풍속개량 등의 계몽성을 주제로 한 연극이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유쾌하게 놀았다", "재미있는 연극" 등의 내용에서 다소의 흥미를 돋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업회 二주년 기념 성황」(『勸業新聞』, 1913.12.21)에서는, "여흥으로 몇몇가지 풍속 연극과 일인이 한국 학생을 학대하는 일"을 공연하였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 항일소재의 극도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배일의 신한촌 경황 (『勸業新聞』, 1913.9.21)에는 "풍속개량과 역사적 연극"이라 하여 계몽적인 내용의 극과 함께 역사극도 무대에 올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드물게 제목이 제시된 경우도 있는데, 「연극회의 성황」(『勸業新聞』, 1914.1.18)이 이에 해당된다.

> (43) 지난 十二일 밤권업회관 안에서 연극회를 열고 과목은 민충정공의 혈죽, 이재명씨의 사실, 간도 최학성의 파혼, 갑인대몽 등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놀았으며 관광자가 수백 명 하더라.

(43)을 보면 민충정공의 혈죽 , 이재명의 사실」, 최학성의 「파혼 과 갑인대몽 등 작가와 극 제목이 나타나 있다. 보다시피 무엇을 주제화한 것인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미있게 놀았으며"라는 표현에서 그렇게 진지하거나 무거운 내용의 연극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앞서 다룬 상해와 남경 등지와 달리, 본토 지역 연극을 공연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 (44) 본학교에서 금일 하오 七시부터 내일 상오 二시까지 연극회를 개하오니 유지청군자는 왕림하시옵소서. 一. 군악대 二. 러시아 풍속 연극 三. 남녀학생의 국가 四. 러시아 창가 五. 무도 입장권은 二원으로 二十五전까지오니 속히 매득하시옵소서.
>
> 「좋은 구경들 하시오」(『勸業新聞』, 1912.11.3)

> (45) 동양대학교 학생 와실니김, 메포지김 양씨가 교장 보쓰따빈 씨의 찬조로 "륙력 본월 이십육일 밤에 한민학교 안에서 러시아 연극을 설행한다더라."
>
> 한민 러극」(『勸業新聞』, 1912.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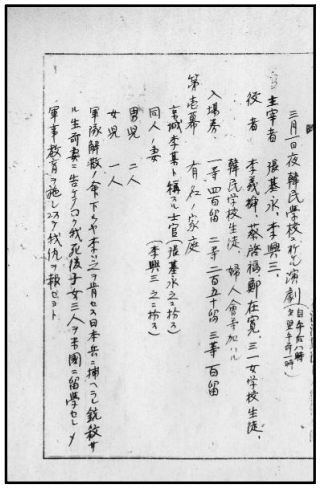
위의 예문에서 나타난 바, '러시아 풍속연극', '러시아 연극' 등의 공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45)의 경우는 한인 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으로, 권업회에서 주최한 이 연극은 한인사회 뿐 아니라 "러시아인 사회에 대하여 의연을 모으는"[47] 데도 목적을 둔 공연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러시아 연극을 공연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극을 놀아」(『勸業新聞』, 1913.3.23)를 보면 "의취가 많은 여러 가지 한국 연극을 놀았는데"라는 내용이 보이고, 「새해에 재미있는 연극」(『勸業新聞』, 1914.1.11)에는 "한국식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극을 논다" 등과 같은 공연 정보가 나와 있다. 굳이 '한국연극', '한국식'이라 구별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한인사회 내에서의 공연은 한국연극만이 아닌 러시아 연극도 올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勸業新聞』 외에 한국독립선언기념회에 관한 건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기타 보고서』, 1920.2.17)에 한민학교에서 공연된 삼일절 기념극 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이 자료에는 <유명한 가정>, <배일 친일>, <독립선언>, <사탕팔이>, <태극기의 그

47) 「김씨를 위하는 연극」, 『勸業新聞』, 1913.11.23.

www.kci.go.kr

림> 등 4개의 공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그 대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한국독립선언기념회에 관한 건」(『독립운동가자료 기타 보고서』, 1920.2.17)

이 기념식에서는 위에 제시된 연극을 4막으로 나누어 공연했다. 제 1막에서는 <유명한 가정>이 공연되었고 등장인물은 '경성 이모라고 칭하는 사관'(배우 장기영), '동인의 처'(배우 이흥삼), 남아 2명, 여아 2명 등이다. 1막의 사건은 '군대해산 명령'에 불응한 사관이 일본군에게 총살되자 자식들이 그 원수를 갚고자, 이완용(李完用)을 위시한 친일파의 회합 장소에 폭탄을 투하하고 모두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제 2막의 <배일 친일>은 배일파(배우 이의순), 친일파(배우 채계복) 등이 등장인물로서 겉옷부터 속옷에 이르기까지 조선옷을 입은 배일파가 양장을 한 친일파를 비난하면서 서로 대립한다는 내용이다. 제 3막의 <독립선언>에서는 여학생(배우 이의순)이 주요 인물이다. 여학생은 독립선언서를 들고 경성 파고다 공원으로 향하던 중 발각되자 노상에 선언서를 모두 뿌린다. 그러자 주위에 모인 많은 학생들이 이를 주워들고 모두가 만세운동을 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제 4막의 <사탕팔이>에서는 사탕팔이로 위장한 한 여학생이 등장하며, 그녀가 경성의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지사를 물색하면서 애국단체를 결성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제 5막의 <태극기의 그림>에서는 배우 이흥삼(李興三)이 태극 무늬를 들고 관객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이것을 사기를 권한다. 그러나 막상 가격을 흥정하며 관객들이 사려하자 선뜻 팔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록 자료에서는 특별히 이에 대한 부기(附記)를 달고 "관객이 잘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선혼 혹은 애국혼은 돈

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공연 정보에서는 줄거리 소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작품을 볼 수 없어 극 전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막에서 4막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항일의식 및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극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5막은 연극이라기보다 4막까지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에필로그 정도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권업회를 주체로 한 공연 정보는 그다지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소략한 공연 정보로 계몽극, 풍속극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자료를 많이 볼 수는 없었으나 항일극도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연극 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 연극도 한인에 의해 공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3.3.2. '연극단'의 선전극

러시아 원동 지역 등에서 이루어진 연극단의 공연 정보는 앞선 『勸業新聞』에 비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편이다. 특별히 당시 이 지역의 대표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선봉』지를 중심으로 공연 정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연극단' 주요 공연 목록

번호	게재지	연월일	기사명	연극 제목	기타
1	선봉	1926.3.13	붉은빛이라는 연극으로 주민을 깨워주다	<붉은빛>	치머우당야체이까
2	선봉	1930.5.30	연극평을 평답게 함으로써 작가와 대중을 연마, 교양시키자	<칼>, <떠나가는 배>, <돗는해 마중가며>	소왕령사범학교 순국단(농촌연락반) 공연, 하바로브스키 연극 합평회, 현일규 평
3	선봉	1931.11.24	황무지라는 극을 보고서	<황무지>	고려로력청년극단 공연, 김준 평

www.kci.go.kr

4	선봉	1933.10.5	극-장평동의 횃불에 대하여	<장평등의 홰ㅅ불>	원동 고려극단 고연, 연해주 소비에트군사동맹 고려부 비평위원회 이인, 김의철, 채계도
5	선봉	1934.4.8	연예계에 귀중한 선물인 선도-상섭이를 보고서	<선도 상섭이>	원동 순회극단 공연
6	선봉	1934.7.13	1935년도에 대한 준비	<춘향전>, <심청전>, <투쟁>	조선극단 공연
7	선봉	1934.9.9	춘향전	<춘향전>	조선극단 공연
8	선봉	1935.11.4	해삼시 조선극단의 1936년도 제재에 대해	<춘향전>	조선극단 공연, 극단예술지도원 채계도 평
9	선봉	1936.3,10	각본 '사랑하는 여슷 사람'의 상연을 준비하고서	<사랑하는 여슷 사람>	조선극단 공연, 아 하로브스키 작
10	선봉	1936.11.7	십월혁명 산아로서의 조선인극장	<홍해의 긔적>, <봉국선>, <장한몽>, <춘향전>, <풍긔를 지나>, <신철산>, <동변빨치산>	원동 고려극단 공연
11	선봉	1937.1.11	『심청전』을 각색하고서	<심청전>	조선극단 공연
12	선봉	1937.8.15	『춘향전』과 『뜬소경』을 보고서	<춘향전>, <뜬소경>	조선극단 공연, 허원용 평

[표 3]에서 정리한 공연 정보를 보면, 구체적인 연극 제목의 제시는 대부분 1930년대 이후의 자료들이다. 동시기는 고려극단이 조직될 정도로 연극단의 활동이 정착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검토 자료 중 앞선 시기부터 공연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붉은빛이라는 연극으로 주민을 깨워주다」(『선봉』, 1926.3.13)에서는 <붉은빛>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 있지 않으나 "문화사상과 혁명정신"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연극으로 "일반주민에게 많은 각오"를 주었다고 쓰여 있다. 여기에서 일종의 사상성을 띤 계몽 선전극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황무지라는 극을 보고서 (『선봉』, 1931.11.24)에서는 '고려로력청년극단' 주최로 스탈린 구락부에서 공연된 <황무지>에 대한 정보를 찾

아볼 수 있다.

> (46) 금년십월긔념에해삼 고려로력청년극단의 주최로 쓰달린구락부에 상연되던극 "황무지"는 우경긔변주의와 당의 총방향을 악화시긔는 것으로 되엇습니다. (…) 공격대원은 한사람이고 긔타는전부 태업자로 화하엿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공장에서 보지못하엿으며 이러한 사실이없음으로도불구하고 쏘베트국가의 로동자들을 태업자로 나타내는것등 사실들은 각본의정치적무식과또 실책을 말하는 것이다.
>
> 「황무지라 극을 보고서」(『선봉』, 1931.11.24)

위 글의 필자는 김준으로서 당시 『선봉』에 연극평 및 문학평, 문학작품 등을 자주 게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48] 예문에 의하면 <황무지>는 '10월 혁명 기념일'에 공연된 작품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주도한 노동운동의 전개상을 다룬 것이며, '우경개변주의'가 당의 방향성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전언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비평에서는 실제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리얼리티 면에서 극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연해주 소비에트군사동맹 고려부 비평위원회"의 이인, 김의철, 채계도 등에 의해 쓰여진 「극-장평동의 횃불에 대하여」(『선봉』, 1933.10.3~5)에는 <장평등의 횃불>이라는 작품에 대한 평문이 연재되어 있다.

48) 김준은 연해주 이만시 근교에서 출생하였는데, '15만원사건' 후 블라디보스톡 원동국립종합대학 직속 노동학원을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종합대학에 입학하여 철학을 전공했다. 이후 김준은 선봉신문사의 기자로 활약하며 많은 문학작품을 발표했다. 강제이주 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레닌기치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시, 소설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단행본으로 간행된 그의 대표작으로는 소설 『15만원사건』(1964)과 시집 『그대와 말하노라』(1977) 등이 있다. 김준은 러시아 작가와 시인들의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다(우블라지미르, 「CIS 고려인문학 노련가 김준시인의 출생 95주년에 즈음하여」, 『고려일보』, 1995.10.14).

www.kci.go.kr

(47) 최근에『원동고려극단』이 해삼시『쓰탈린』구락부 무대에서 제일회(다시조직후)로 상연한『장평등의홰ㅅ불』(전6막)을 전개한것이엇으며 딸아서 그 평가의 총화를 일반 군중에게 소개하려는 것이다.

「극-장평동의 횃불에 대하여」(『선봉』, 1933.10.3)

(48) 우리극계의 어린작가-연성용동무의 첫솜씨로된「장평등의 홰ㅅ불」을 고려 내지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지주 및 토호의 발호와 그들의 가혹한 농민탄압, 그를 말미암아 불가피로 닐어나는 노동 및 소작농민들의 분규, 그 항쟁에서의 무정부주의, 개량주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과 역할 및 혁명자들에 대한 경찰의 취체등 현시 모든 사회상을 여지없이 들어보이려는 사회극인것만치 일반 관중의 주목을 특별히 더 끌만한 극이엇다. (…) 고려 혁명운동에서의 정치적 방향에 대하여정당하고 철저한 이해, 관찰을 가지지못한데에서, 또는 넘우도 여러가지의 복잡한 사회상을 억지로 다 담아내려는 시험에서의 무대감독 및 출연 배우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가지어온 연극이 되게 하엿다.

[그림 10]「장평동의 횃불」의 한 장면(『선봉』, 1933.10.3)

극 -장평동의 횃불에 대하여」(『선봉』, 1933.10.3)

위의 내용들을 보면 <장평등의 횃불>의 작가는 연성용이며, 원동 고려극단이 스탈린 구락부에서 공연한 작품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극의 내용은 농촌이 배경이며 지주의 농민 탄압, 소작쟁의 등을 다루고 있는 사회극이다. 평자는 취재면에서 리얼리티를 획득하여 관객의 호응을 얻은 작품이라 평가하면서도 무대감독의 연출력과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인용문 뒤에 이어지는 글에서는 간헐적으로 공연 정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재구해 보면, 전체적인 극행동상은 일본인들의 수리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상이다. 주인공은 '김영수'로서 그를 통하여 "지주, 자본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한 후에 인류력사에 힘있는 쏘베트 주권을 세우고"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노동자들에겐 공장과 제조소의 일터를 찾게 한다는 내용이다. 김영수와 대립되는 안타고니스트는 "개량주의자 오상원"이다. 그는 "비공산주의자의 행위"로 일관하는 인물이다. 또한 농민을 구성하는 인물군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일자무식의 빈농인 여자 옥련이"가 등장하며 그녀는 농민들의 소작쟁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다. 이 밖에도 일본경찰들의 농민 탄압상들이 주요 장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주들의 호사스런 생활이 비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다시피 이 작품은 반일반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이다.

연예계에 귀중한 선물인 선도-상섭이를 보고서 (『선봉』, 1934.4.8)에는 <선도 상섭이>이라는 작품에 대한 극평이 게재되고 있다. 이 작품은 원동 순회극단에 의해 공연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9) 원동 순회극단은 근일에 자체내에서의 창작한 극-'선도 상섭이'의 출연으로써 그의 사업상 공적을 확충 및 빛나게 하엿으니, 이는 무엇보담도, 그 극의 제재가 어떤 외부의 연예대에서 흔히 보지 못하던 주요한 산업 발전에 저의 생산계획을 위한 투쟁과 또 그에서의 계급투쟁을 담아내는-우리에게 이미 실제로 있은(사루리노 어장에) 사실은 예술적으로 반영하여 엄한 관중에게 많은 감동을 준것과 또는 배우들의 표현저술이 전에 비하여 매우 진보된것에서 그러하니

연예계에 귀중한 선물인 선도-상섭이를 보고서」(『선봉』, 1934.4.8)

(49)의 예문에서 <선도 상섭이>는 당시 '사루리노 어장'에서 일어난 실제 노동운동을 다룬 연극임을 알 수 있는데, 이어지는 글에 의하면 '상섭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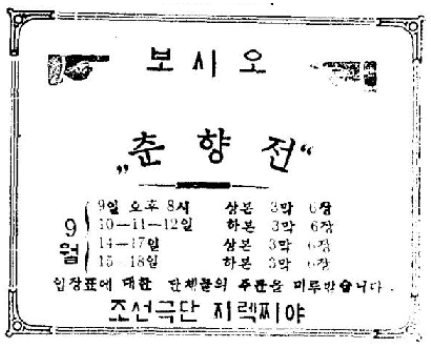
이'와 '영효' 등이 주요 인물이다. 그들은 "어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밤낮 고기잡이를 꾸준히 실행하며" 어부들을 계몽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제시된다. 이에 반하는 부정적인 인물들은 '황가'와 '최서방'으로 황가는 어부들을 착취하는 인물이며, 최서방은 어부들의 어선을 모두 탈취하여 섬을 떠나는 인물이다. 여기에 기타 인물군으로는 '순금'이라는 여성과 '공격대원'들이 등장하며 이들은 어촌의 계몽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인물들이다.[49]

기타 「십월혁명 산아로서의 조선인극장」(『선봉』, 1936.11.7)에서는 공연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채, 고려극단에 의해서 <홍해의 긔적>, <동북선>, <풍긔를 지나>, <신철산>, <동변빨치산> 등이 공연되었다는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개의 연극은 사회주의적 사상성을 내포한 선전극이며 일종의 사실주의극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고전극도 공연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 (50) 1935년도의 준비사업으로 위선 각본준비에 착수하엿다. 고대가극 "춘향전"과 "심청전"과 투쟁」이란 소설의 각색도 예정한다. 만주 고려인 형편, 국내경쟁에 대줄 각본의 창작, 어장; 농촌; 탄광: 풍습(연대극, 낡은 관습과의 투쟁에 대한 극) 등의 각본을 창작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책임질 작가들까지 벌서 지정하여 놓앗다.
>
> 1935년도에 대한 준비」(『선봉』, 1934.7.13)

49) 또한 연극평을 평답게 함으로써 작가와 대중을 연마, 교양시키자」(『선봉』, 1930.5.30)에서는 <칼>, <떠나가는 배>, <돗는해 마중가며> 등 3편의 연극 정보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공연 정보를 통해 보면, <칼>이라는 작품의 러시아 혁명 전후 시기의 농노와 지주와의 투쟁상을 다룬 극으로 지주층이 붕괴되는 결말을 보인다. <떠나가는 배>는 일종의 번안극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으며, 작가, 극 내용, 원작 등은 밝혀져 있지 않다. <돗는해 마중가며> 또한 구체적인 정보가 밝혀져 있지 않으며, 합평회에서 과소평가받은 작품이라고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윤금선, 앞의 글, 102면 참조).



[그림 11] 춘향전」 광고(『선봉』, 1935.9.9)

'김돌이'라는 필자에 의해 쓰여진 위 기사문은 고려극단의 1935년도 공연 레퍼토리를 소개하는 글로, 소설을 각색한 <투쟁>이라는 작품과, 각 농어촌 및 노동현장을 소재로 한 사회극, 그리고 이와 함께 '고대가극'이라 칭한 <춘향전>과 <심청전> 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고전극인 두 작품은 신문 광고로서도 자주 보이고 있으며, 고려극단(조선극단)의 주요 공연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51) 고전 예술의 상속을 풍부히 가지지 못하고 극예술의 발전이 빈약한 토대우에서 생기어난 해삼시 조선극단(이전의 원동 조선극단)은 지난 3년동안 자긔 발전의 행정에서 많은 창작상의 란관들을 가지엇섯다. (…) 그리하여 이 극단은 창립초긔에 적은 선전극을 놀던 대신에 지금에는 예술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큰 극들과 '춘향전'과 같은 유명한 고전극까지 상연함에 니르럿다.
>
> 해삼시 조선극단의 1936년도 제재에 대해」(『선봉』, 1935.11.4)

이 글의 필자는 채계도로서 <장평등의 횃불>을 평하기도 한 "연해주 소비에트군사동맹 고려부 비평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연극을 '선전극'과 대비하여 '예술적 작품'과 '고전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글에서는 조선극단의 공연 레퍼토리가 예술성을 띤 작품과 더불어 고전극을 상연하기에 이르러 극적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호평하고 있다. 특히 <춘향전>의 상연에 대해서는 '고전 예술의 상속'을 비로소 이어받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www.kci.go.kr

「십월혁명 산아로서의 조선인극장」(『선봉』, 1936.11.7)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2) 이러한 사업들중 한가지 결과로는 18세긔 작품 춘향전을 상연시킨 그것인바, 이것은 극장 직원 자체에나 또는 관람자들에게 한하여, 고전 조선 문화의 유전을 소유하는 일에서의 큰 비판적 학교로 되엇다. 이리하여 조선의 봉건시대의 작품을 연구하며 극적 긔교를 높이는 문제에서 극장은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엿는 바, 극장은 배우들의 긔교에 대한 큰 성과를 달성하엿으며 배우들중에서 가명의 세극작가를 내엇다. 이 극작가들의 각본의 긔본 내용은 사회주의적 전선의 새 사람들을 보이며 조선의 혁명운동을 보이는 그것이다.

「십월혁명 산아로서의 조선인극장」(『선봉』, 1936.11.7)

위의 글에서도 <춘향전> 공연에 대해서 극장이나 관객들이 '고전 조선 문화의 유전을 소유하는 일'이라면서 고려극장(조선극장)의 선도적인 역할과 극계의 위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심청전'을 각색하고서」(『선봉』, 1937.1.11)라는 기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고전극은 원작이라기보다 대개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미한 각색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 꽃답은 심청의 살기를 욕망하엿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불교적 미신적 교훈에 꼭 물젖은 그때에 사람좋은 심청이뿐만 아니라, 다수도 심청의 행동을한다고 인정할 수 밖게 업엇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다수 군중을 유불교적 미신에 꼭 물젖은 눈머ㄴ-뜬소경들이엇다. 심청전을 이와같이 해석하면서 각색자는 심청에게 살겟다는 욕망이 대단하엿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써ㄱ은 도덕에 마취되어 그명계를 피했을수는 없었다는 것을 보히어줌으로써 봉건제도덕 모순과 불교의 음흉한 사실을 파들어가려고 하엿다.

'심청전'을 각색하고서」
(『선봉』, 1937.1.11)

「심청전」을 각색하고서

[그림 12] 『심청전』을 각색하고서 (『선봉』, 1937.1.11)

(53)은 이름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각색자가 각색 의도를 밝힌 내용이다. 보다시피 봉건제도의 모순과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유불교적 부조리가 살기를 욕망하는 심청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식이다.

그런데 원작의 재해석을 가한 고전극임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의 반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54) 몇해전 붙어 갈망하던 "춘향전"을 금년 칠월 25-26일에 구경하엿다. 이 "춘향전"을 상연할 때에 먼거리를 헤지않고 각 지방으로 붙어 남녀 콜호즈원, 로동자 및 로력자들이 800-900명식 몰이어오앗다. 그들이 원동 조선인 극단에 대한 환영과 "춘향전"에 대한 호긔심이 어떠하엿던 것을 알 수 있다.

'춘향전'과 '뜬소경'을 보고서」(『선봉』, 1937.8.15)

(54)는 허원용이라는 필자의 글로서, 이를 보면 고전극 상연에 관객들이 많이 모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국내에서도 고전극이 인기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던 시기였는데, 소재의 익숙함으로 인해 비록 각색극이지만 이주 한인들에게도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 시기 미주 지역에서도 우리의 고전극은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공연물로서[50] 타국에

50) 「대학교 보성회 연극」, 『國民報』, 1938.1.26; 「봄놀이의 좋은 성적」, 『國民報』, 1938.5.11; 하와이 부로와 제二세 형제에게」, 『國民報』, 1948.5.26; 부인구제회 통상회록」, 『國民報』, 1943.11.24 등.

www.kci.go.kr

이주한 재외 한인들에겐 테마의 익숙함 외에도 조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조선적인 요소들이 호응을 얻게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원동 지역 연극단의 연극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연극은 사회주의적 사상성을 내포한 선전극과, 사상성을 가미한 고전 각색극이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의 공연 정보는 주로 비평문에 게재된 것들이다. 여기에서 주텍스트로 삼은 『선봉』은 문예란에 지속적으로 연극평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 사항이다. 지면의 한계상 본고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했다. 이를 통해 연극관이나 연극론 등의 전개상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차후 논문으로 돌리는 바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동북아시아 지역 민족 단체 및 연극 단체의 연극 활동을 고찰하였다. 특별히 본고에서는 당시 이 지역에서 발간된 『獨立新聞』, 『韓民』, 『救亡日報』, 『勸業新聞』, 『선봉』 등의 민족지와 잡지 『韓國靑年』, 독립운동가 자료 등을 중심 텍스트로 삼았다. 이 시기에 쓰여진 동북아 지역 한인들의 희곡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된 단편적인 공연 정보를 통해서라도 당대 연극 활동들을 재구하고 그 사료적 가치를 자리매김해 보고자 했다.

본론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두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에서는 상해와 남경 등지, 후자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등을 중심으로 민족 단체들의 연극 활동을 고찰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먼저 공연 주체측과 공연 목적 등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공연 정보를 통해 극 내용과 특징 등을 살폈다. 본고에서 다룬 구체적인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지역은 민족 단체와 독립군의 연극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민족 단체의 경우를 보면 인성학교나 동명학원 등 '임시정부 산하 기관인 교육기관, 대한애국부인회, 청년회 등이 주도가 되어, 한인사회의 각종 모임에서 연극 공연이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개의 공연은 애국적 내용이나 항일투쟁의 내용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연극은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공고히 하며 교민들에게 민족적 울분을 해소해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한편 연극 공연은 한인사회 각 기관의 '보조금' 및 '구제금' 마련을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대한애국부인회의 연극 활동은 미주 하와이 지역의 '부인구제회'와 비교된다. 부인구제회도 국민회 산하단체로 미주 한인사회를 위한 구제연극을 자주 개최했다. 특히 부인구제회는 동북아 지역의 독립활동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연극을 상연했는데, 이 점에서 당시 재외 한인사회 여성들의 연극 공연은 일종의 민족운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용대' 및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등의 독립군의 공연 활동상을 보면, 이들은 주로 항일 소재의 공연을 개최했으며 공연을 통한 선전활동을 주요한 당면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연극을 통하여 일제가 한중 공동의 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중국인들의 항전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한중합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전지공작대의 경우 극본을 출판할 정도로 연극 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지역의 연극 내용 및 특징을 보면, 첫째, '임시정부' 산하 민간단체의 기념극과 자선극, 둘째, '한국전지공작대'와 '조선의용군'의 항일극으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의 경우 공연 정보를 정리해 보면 교육기관의 연극으로 상해 인성학교의 <凱旋>(1924), 삼일절 기념극 '역사정극(歷史正劇)'(1923), '소인극'(1924) 등과 남경 동명학원의 <百年의 功>(1925) 등의 작품을 살펴 보았다. 대개 공연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으나 주로 항일극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교육단체 외에 대한애국부인회의 '가극'(1919), 삼일절 기념극인 <隔夜>(1922),

www.kci.go.kr

가극 및 희극(1922), 삼일절 기념극인 '항일극'(1923) 등의 공연 내용을, 흥사단의 원동대회 기념극인 <國交斷絶>(1924)과 <犧牲者>(1925), 청년회의 삼일절 기념극인 <삼일혼>(1938) 등의 공연 내용에 대해 분석했다. 마찬가지로 제목과 내용이 갖추어져 제시된 경우가 많지 않으나 기념일 성격이나 제목, 약술된 줄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단체들의 공연도 대개 항일의식 및 민족의식 고취의 극으로 보여지며, 정극(사실주의극), 가극, 고전극 등으로 장르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군의 공연 내용 및 그 특징을 보면,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연극으로는 군인 위문공연극인 <국경의 밤>(1940), <한국용사>(1940), 가극 <아리랑>(1940) 등을 살폈는데, 세 작품 모두 항일소재의 극이다. '조선의용대'의 연극으로는 삼일기념극 <조선의 딸>(1939)과 가극 <아리랑>(1939), '7 • 7항전'의 기념극 <反攻>(1939) 등에 대한 공연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反攻>은 제목 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앞선 두 작품은 발굴 자료를 통하여 극 내용 및 관객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연극은 일제의 압박과 착취, 조선 민족의 고통과 반항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가극 <아리랑>은 시골 처녀를 중심으로 한 서정적인 목가(정적인 리듬)와 혁명군들의 합창(동적인 리듬)이 교차하는 무대 구성으로 서정성이 강화된 작품이다. 또한 이 작품은 두 독립군 단체의 주요 공연 레퍼토리였으며, 관객의 호응이 높았던 연극이다.

둘째, 러시아 지역은 '권업회'와 '연극단'의 연극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권업회' 중심의 공연은 중국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인사회의 주요 기념일에 개최되었다. 대부분의 공연은 한인을 위한 의연금 마련이 지배적이었고, 간헐적으로 드러난 자료에 의하면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러시아의 원동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극단을 조직하여 연극을 공연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각종 순회극단 및 '고려극단'(조선극단) 등은 '문화사상과 혁명정신'을 선전하고자 선동적인 연극을 공연했으며, 그 수익금은 한인사회 각 기관들의 재정적인 보조금으로

쓰였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삼일절 기념극과 같은 민족의식 고취의 공연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러시아의 동화정책 등으로 중국과는 또 다른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지역의 공연 내용 및 그 특징들에 대해 살펴 보면, 권업회를 주체로 한 공연 정보는 그다지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소략한 공연 정보로 계몽극, 풍속극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유명한 가정>(1920), <배일 친일>(1920), <독립선언>(1920), <사탕팔이>(1920), <태극기의 그림>(1920) 등과 같은 항일극도 부분적으로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연극 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 연극도 한인에 의해 공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러시아 원동 지역 등에서 이루어진 연극단의 공연 정보는 '권업회' 공연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편인데, 대부분이 1930년대 이후의 자료들이다. 동시기는 고려극단이 조직될 정도로 연극단의 활동이 정착화된 시기로서, 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극비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연극 내용은 주로 평론을 통해 나타난 정보이기도 하다. 극정보를 보면 사상성을 띤 계몽선전극 <붉은빛>(1926), 농노와 지주와의 투쟁상을 보인 <칼>(1930),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소재인 <황무지>(1933), 농촌을 배경으로 지주의 농민 탄압, 소작쟁의 등을 다룬 <장평등의 횃불>(1933), '사루리노 어장'에서 일어난 실제 노동운동을 극화한 <선도 상섭이>(1934) 등을 살펴보았고, 기타 <떠나가는 배>(1930), <돗는해 마중가며>(1930), <홍해의 긔적>(1936), <동북선>(1936), <풍긔를 지나>(1936), <신철산>(1936), <동변빨치산> (1936) 등은 극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채 공연 소식만 전해진 작품이다. 한편 사회주의적 사상성을 가미한 고전 각색극도 공연되었는데, <춘향전>, <심청전> 등은 전문극단의 고정 레퍼토리로 정착되기도 했다. 특히 고전극에 대한 관객의 반응도 높았는데, 이 시기 미주 지역에서도 우리의 고전극은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장르로서 타국에 이주한 재외 한인들에겐 테마의 익숙함

www.kci.go.kr

외에도 조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조선적인 요소들이 호응을 얻게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獨立新聞』
『韓民』
『救亡日報』
『勸業新聞』
『선봉』
『韓國靑年』
김보희,『소비에트 시데 고려인 소인예술단의 음악활동』, 한울, 2009.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김원모,「하와이 한국 이민과 민족운동」,『미국사연구』 제8집, 한국미국사학회, 1998.
김재석,「1920~1930년대 사회극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2.
김해룡,『광복전중조연극사비교연구』, 한국문화사, 2000.
國家報勳處,『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第4卷, 國家報勳處, 1987.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의 역사』, 독립기념관, 1995.
민병욱,『희곡문학론』, 玄凡社, 1989.
박 환,『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윤금선,「일제강점기 해외 한인의 연극 활동 연구」,『한국극예술연구』 제24집, 한국극예술학회, 2006.
윤인진,『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이강렬,『한국사회주의연극 활동사』, 東文選, 1992.
이남복,『연극사회학』, 현대미학사, 1996.
이명재 외,『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장사선 • 우정권,『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 월인, 2005.
장준하,『돌베개』, 사상사, 1971.

정봉석,『일제강점기 선전극 연구』, 월인, 1998.
조규익, '移民문학'은 '우리 문학'이다: 재미한인 이민문학의 현황과 의미 ,『OK time』 제107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조동일,『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05.
차배근 외,『우리 신문 100년』, 현암사, 2002.
한중교류중심 편,『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도서출판 고구려, 2000.
한시준,『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Play Activity of the Korean Organization
-focus on the Nation group and Theatrical group in the Northeast Asia of the Japan Occupation-

Yeun Keumsun

This study analyzed about Korean play activity of the ethnic group in the Northeast Asia. And this treatise considered play data reported to a Korean Newspaper of the Japan Occupationr, that is, *Independent Newspaper*(獨立新聞), *HanMin*(韓民), *Gumang-Ilbo*, *Gwoneop-Sinmun*(勸業新聞), *Seon-Bong*(先鋒) and magazine, *Hanguk-Cheugnyen*(韓國靑年).

This study tried to consider play and performance information through the data which it was collected at newspapers, It is set up China and Russia by study at these papers. Specially, it was studied play activity of ethnic groups in the Sang-Hae, Nam-Gyeong, and Vladivostok regions, and arranged at the main subjects. It was paid attention by the following matters.

The the first, the subject part that put on a display of play activity is anyone, and an actor and a director, a performance purpose is anything. The the second, the play work is anything, and the internal volume characteristics are anything. Group which sponsored a performance was 'group of ethnic', 'army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group of play' etc. And most play contents were contents expelling Japan, but drama played in Russias was agitating contents.

This study tried to consider play activit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above-mentioned examinations. And It would enlarge the horizon of understanding regarding play activity of a Korean abroad.

Key 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Northeast Asia, the Korean Organization, play activity, performance subject, play contents, *Independent Newspaper*, *HanMin*, *Gumang-Ilbo*, *Gwoneop-Sinmun*, *Seon-Bong*, *Hanguk-Cheugnyen*, *The New Korea*, *The Korean National Herald*

접수일: 2011년 8월 31일
심사기간: 2011년 9월 8일~9월 24일
게재결정: 2011년 9월 24일

www.kci.go.kr